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카푸치노 같은 거품이 나는 가루차!

누가 분쇄기를 쓰지 않고 맷돌로 갈까요?



한국제다는 전남 영암, 장성, 해남에 10여만평의 다원을 가지고 우리 차를 직접 만듭니다.
57년 차를 만들어온 경험으로 차를 알고 차를 만듭니다.

우리 차의 정신- 한국제다 가루차

 한국제다

제품 상담: 062)222-2902

차문화 2022 여름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 소식지 차문화

2022 Vol. 146 여름

茶文化



통권 146호 (사)한국차문화협회



뒤늦게 깨달은 건강 차를 통해 치유하고자 노력하다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고경명은 조선 시대 문신으로 의병장이자 차인이다. 본관은 장흥이며, 호는 제봉이다. 고경명은 문과에 급제하여 서산 군수를 지냈으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친 의병장이기도 하다. 그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했으나 보다. 그의 시에는 술을 소재로 한 시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중에서 '병이 나서 술을 끊고 서하 송강에게 보이다'란 시에는 술병이 나서 이제는 술을 끊어야겠다는 말과 함께, 이제는 차로 삶을 관조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운동 정신 잃도록 술을 마셨으니 누가 원앙에게 술이나 마시라 권했던가?

도연명이 옛날 술 끊은 것이 어찌 생각 없었겠으랴? 두보가 새롭게 술잔 멈춘 것은 대단한 일이라네.

병든 뒤엔 소심해져 후회하고 두려워하니 예전의 호기롭던 흥취가 순식간에 없어지네.

주막의 술빛이여, 나무라지 말게나! 차 술에서 보글보글 게는 거품 일어난다오.

병이 든 고경명이 술친구였던 정철에게 자신의 금주 사실을 알리고, 이제는 차나 끓여 마시겠다는 의지를 말하고 있는 시이다. 이 시의 압권은 차 술에서 보글보글 게는 거품 일어나는 모양을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여 생동감을 더해 주고 있는 점이다. 차 술에서 게는 거품 일어나는 모양을 통해 병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의 또 다른 차시 '병중에 강숙에게'를 살펴보자.

술 때문에 병이 났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 얼른 술잔을 물리쳤으나 후회막급이로다.

술바람 아래 자리 깔고 낮잠을 자니 / 찻사발에 눈발 날리고 장막에 물결 일어나네.

술로 인해 건강을 해친 그는, 이제 차 한 잔을 마시며 인생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다. 건강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은 잃은 것이다. 이 여름 따뜻한 차 한잔하며 건강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 너무 좋아하여 과하게 하는 것은 건강에 안 좋다. 조화롭게 삶을 영위하듯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도 지혜가 아닌가 생각한다.☺

[표지 이야기]

여디를 둘러보아도 꽃의 향연입니다. 꽃의 향연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연초록 찾았을 따서 두고 차를 만들었던 제다실습을 마무리한 5월입니다. 차가 주는 위로를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차와 사람을 잇는
(사)한국차문화협회 소식지

2022년 여름호 (통권 146호) | 발행·편집인 최소연
발행처 (사)한국차문화협회 | 편집부장 고만송
0401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T. 02) 719-7816, 7817 F. 02) 719-7815

홈페이지 www.koreatea.or.kr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茶文化

2022 Vol. 146 여름



茶半香初 • 내 안의 향기를 찾아

- 004 이사장 인사말 | 차문화의 발전은 '참 스승'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 006 특집 1 규방다례 활성화 공연 영상 촬영
- 016 특집 2 제25회 온라인 청소년 차예절경연대회 개최
- 026 협회 소식 | 스승의 날 맞아 명예이사장님께 헌다식 / 3월 정기이사회
대학원 대면수업 / 교육위원 모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간담회 참석

茶香共感 • 차의 맛, 차의 멋

- 036 차문화의 성지를 찾아서 | 경남 사천 곤명면 다솔사(多率寺)
- 042 고전에 길을 묻다 | 최부 표해록
- 046 선조의 품격 | 여름, 감사의 차
- 050 건강한 삶 | 갯년기
- 054 회원 글발 | 차(茶), 차(茶), 차(茶)
- 074 찾자리가 있는 풍경

茶情茶感 • 찾았이 맺어준 인연

- 075 지부사랑방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 인천지부 / 전남지부 / 충북지부
- 098 광고 / 한국차문화대학원 모집 안내
- 100 자격검정 시행 공고
- 101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액 내역
- 102 우송료 명단

차문화의 발전은 ‘참 스승’의 가르침에서 나옵니다

국내외 차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시국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기나긴 시간 동안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단합해 주신 차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와의 싸움은 수많은 희생을 낳았지만 결국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고, 기나긴 싸움의 고통은 결국 우리의 기억과 함께 과거로 흘러갈 것입니다. 영국의 인류학자 A.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생물과도 같아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문명과 민족이 동일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에 맞선 응전의 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 하계·동계연수회, 차인 큰잔치, 보수교육, 대학원 입학 및 졸업, 규방다례보존회 전승 공연 등을 취소, 축소, 연기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전 회원들이 똘똘 뭉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서로에 대한 배려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아직도 이 소중한 문화를 지키고 전승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협회에 따스한 온기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2년간 중지되었던 여러 가지 행사가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7일에는 2년 만에 대학원 수업이 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5월 11일에는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홍보영상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랜만에 협회의 임원 및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는 각 지부에 접수된 제25회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의 동영상 심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협회 최초로 온라인으로 치러진 이번 제25회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에서는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예절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지부장님 이하 모든 회원님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계연수회를 비롯하여 차인 큰잔치 및 차음식 경연대회, 그리고 인설 차예절 경

연대회가 차례로 열릴 것입니다. 부디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협회도 변화에 발맞춰 성장해야 합니다. 일견 전통문화계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플랫폼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 보이나, 차문화의 혼과 예절은 시대와 주류를 뛰어넘는 고차원적 정신문화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차문화를 전하는 것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어떠한 시대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접하지 못하고 공부해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차문화의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시대에 발맞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다지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야 합니다.

차예절을 가르치는 데 있어 훌륭한 스승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에는 각 지부장, 지도사범, 전문사범, 인성예절지도사 등의 훌륭한 스승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스승은 길눈이 어두운 신입회원들에게 있어 찬란한 등불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만난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교 용어 중에 도반(道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도반이라고 하는 말은 목적지에 가본 적이 없고 길도 잘 모르는 채, 그저 옆에서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런 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그 길을 가본 사람, 그 길을 매우 잘 알고 또 지극한 인내심을 내어서 아직 가보지 않은 나를 데리고 ‘목적지’에 인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느 때는 손을 잡고, 내가 멈춰 서고 싶을 때에도 나를 이끌고 거기로 데리고 가는 그런 참 스승이 도반입니다. 저는 그런 스승이 진정한 ‘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차인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스승의 날’이 있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족처럼 함께 도우며 새로운 회원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계승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 스승이 되어 차문화 발전과 전파에 일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여름

이사장 **최소연**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
(사)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 (사)규방다례보존회 이사장

2022년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공연 풍류 온(溫), 비대면 온라인 공연 촬영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최소연 보유자 외
이수자 20여 명 참석

협회는 지난 5월 1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인천시 전수교육관 내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선비다례, 생활다례, 가루차 행다례, 규방다례) 유튜브용 동영상 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동영상 촬영은 매년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연례 행사로 최소연 규방다례 2대 보유자를 비롯해 강정자, 차영민, 박광옥, 강순란 이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규방다례는 부녀자들이 방에서 차를 다루는 법과 제반 다반사(茶飯事)로 조선 시대 사대부가의 부인들이 친척이나 이웃을 초청해서 차를 나누며 우애를 다지고, 몸가짐을 익힐 수 있는 음다 풍속을 계승한 것이다.

규방다례는 지난 2002년 12월 국내 최초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고, 고(故)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명예이사장을 초대 보유자로 지정하였다. 이어 2013년 4월에는 2대 보유자로 최소연 현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이 지정되었으며, 2022년 현재 박광옥 전승교육사, 최미리 전승교육사를 비롯하여 규방다례 조영아 이수자 외 27명, 최성미 교육장학생 등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선비다례 - 강순란, 이막동, 유미현 이수자 출연

촬영 전 최소연 규방다례 2대 보유자는 촬영에 임하는 임원들에게 몸가짐 하나하나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최소연 규방다례 2대 보유자는 “몸자세, 손동작, 시선 처리 등을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촬영분은 여러 사람이 우리의 차문화를 접하는 교육용 자료가 되기 때문에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촬영에 참여한 협회 규방다례 이수자에게 말했다. 또한 우리 고유의 차문화를 계승한다는 자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스태프의 노력으로 정각 10시에 촬영이 시작되었다. 첫 촬영은 선비다례로 강순란, 이막동, 유미현 이수자가 출연했다. 선비다례는 선비의 기품을 간직한 자세로 절도와 당당함이 특징이다. 강순란, 이막동, 유미현 이수자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끝까지 기품있는 모습으로 선비다례를 시연했다.

선비다례가 시연되는 동안 최소연 규방다례 2대 보유자는 촬영장 옆에서 함께 호흡하며 격려해 주었다.



생활다례 - 강희옥 이수자, 최성미 전수장학생 출연

선비다례 시연 이후에는 생활다례 시연이 있었다. 생활다례 시연에는 강희옥 이수자, 최성미 전수장학생이 했다. 생활다례는 문헌적 고증에 바탕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한국차문화협회 설립 이후 이 행다법을 꾸준히 보급하고 있으며 많은 차인들이 이를 익히고 있다. 다례 중에서 가장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는 생활다례는 많은 차인들이 처음으로 차문화에 입문하면 배우는 과정이다. 강희옥 이수자와 최성미 전수장학생은 최소연 규방다례 2대 보유자와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지도로 빼어난 솜씨를 보여줘 촬영 관계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생활다례는 야외교육장에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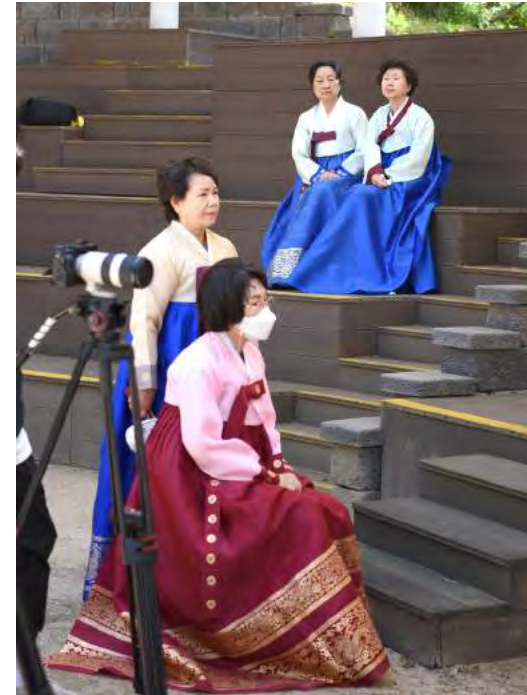


가루차 행다례 - 최지원, 조영아, 이광용 이수자 출연

가루차 행다례 시연은 최지원, 조영아, 이광용 이수자가 해 주었다. 평소에 가루차 행다례 시연을 위해 호흡을 맞춰온 세 분 이수자는 그야말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거침없이 가루차 행다례 시연을 펼쳐 관람하는 회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었다.

차를 우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가 바로 섬세함이다. 정제된 행동으로 하나 하나의 동작에 정성을 다해 손님에게 차와 다식을 대접하는 것이 다례의 기본 정신이다. 이러한 세심한 동작들이 모여 다례에 대한 이미지인 단아함, 섬세함, 배려를 형성하게 된다.

우리가 마시는 다양한 차의 종류 중 가장 섬세한 차가 가루차이다. 가루차는 이름 그대로 찻잎을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이다. 일본사람들이 손님 접대용이나 의식용으로 세계에 내놓은 차가 바로 이 가루차이다. 가루차가 일본이 개발한 차라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가루차는 그 이전에 중국이나 신라 시대 사람들이 즐겨 마셨고 고려 시대에는 떡차를 가루 내어 마시는 풍습이 선비들 사이에 유행해 지나치게 사치스럽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기록에 남아 있다.



규방다례- 김태임, 유현주, 박경숙, 박혜란, 조정미 이수자 출연

촬영 마지막은 규방다례 시연으로 마무리했다. 규방다례 시연에는 주인에 김태임, 돕는 이 유현주, 큰손님 박경숙(대구), 둘째 손님 박혜란, 셋째 손님 조정미가 출연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김태임, 박경숙(대구), 박혜란, 조정미 이수자는 하루 전에 올라와 연습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촬영할 때는 모두가 한 마음 한뜻으로 배려와 협조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최소연 2대보유자는 규방다례 촬영이 끝날 때까지 지도 편달로 이끌어 주었다.

규방다례에서 규방이란 '부녀자가 거처하는 방'을 말하고, 다례(茶禮)는 차례(茶禮)와 같은 말로 '명





절이나 조상의 기일, 또는 음력으로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등의 낮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다례는 차(茶) 다루는 법과 관계되는 제반 다사법(茶事法) 및 이에 수반되는 예의범절과 마음가짐까지를 포괄하는 말이다.

규방다례에는 우리의 전통, 예절, 과학, 생활, 청결을 존중하는 5대 기본정신과 행다를 하는 사람이나 차를 대접받는 손님의 편안하고 원활한 동선(動線)까지 고려해 행다례가 주인이나 손님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했으며, 이는 상보 접는 법, 다관을 잡는 법, 찻잔을 들어 손님께 전달하는 법, 다식을 대접하거나 다식 저를 다루는 방법 등 모든 부분에 일관성 있게 적용되고 있다.



규방다례는 모두를 아우르는 행다 예절로 손님을 맞이하여 인사를 나누고 차를 대접하는 모습인데, 오시는 손님 반갑게 맞이해서 정성껏 대접하고, 가시는 손님 뒤가 안 보일 때까지 배웅하는 한국인의 고운 심성이 담겨 있는 우리의 전통문화로 계승, 보존되어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다. 이번 촬영을 위해 참석한 강정자, 차영민, 이명숙, 이금숙 이수자 외 인천지부 회원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 관계로 촬영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촬영이 진행되어 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이수자들이라는 말을 들었다.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보유자이신 최소연 이사장, 박광옥 전승교육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촬영을 무사히 마쳤다.☺



제25회 온라인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 협회 최초로 동영상 개최

유치부, 초·중·고·대학부 150여 명 참가

한국차문화협회는 설립 이후 최초로 제25회 온라인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차예절 경연대회는 매회 경기도 성남에 있는 가천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렸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온라인으로 차예절경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총 150여 명이 참가한 동영상상을 3일 동안 심사하여 수상자를 결정했다.



5월 17일 1일차 유치부, 초등부 심사



엄격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제25회 온라인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가 동영상상으로 신청한 가운데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협회 교육장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이번 차예절경연대회에는 유치부를 비롯하여,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등 총 15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접수된 동영상상은 지부별 받았고, 대회에 출전한 지부는 경남지부, 대구경북제1지부, 보성지부,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순천지부, 인천지부, 전북지부, 충북지부 등이 접수했다.

제출된 동영상상을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은 기본예절, 절하기, 차내기(차를 우려내 마시기까지의 전 과정)를 통해 순위를 가렸다.

미래의 주역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차(茶) 예절'을 거루는 대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청소년이 참여하게 되어 큰 보람이 되었다.

특집 2 제25회 온라인 청소년 차예절 경연대회

제25회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차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를 통해 올바른 인성을 함양코자 마련됐다. 대회는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가천대학교, (사)규방다례보존회가 후원했다.

지난 1998년 첫 대회가 개최된 이래 25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에는 최소연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차영민 부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전국 지부장, 협회 이사 등이 심사를 맡아주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25회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를 열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우리 협회는 1998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차문화를 통해 바른 인성을 가르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라며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득 품고서 이 나라의 동량(棟梁)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오늘 동영상 경연대회를 통해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길 바란다”라고 축사를 해 주었다.

3일간 협회 교육장에서 심사

5월 17일에는 유치부와 초등부 심사가 있었다. 조영아 인천지부장을 비롯하여 이석예 서울제1지부장, 최지원, 최정희, 유미현, 이기분, 이명숙, 노영숙 이사가 심사를 맡았다.

심사위원 일동은 “동영상으로 심사를 하다 보니 장점도 많았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볼 수 있었고, 지부별로 어떻게 교육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잘하는 학생을 볼 때는 대견해서 좋았고, 실수하는 학생을 볼 때는 귀여워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고사리손으로 차를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장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5월 18일에는 중등부 심사를 했다.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은 강순란 부회장을 비롯하여 박혜란 광주지부장, 이막동 전 인천지부장, 이광용 이사, 강희옥 이사, 문차남 이사, 이금숙 이사께서 수고를 해주었다.

2일 차 심사에는 최소연 이사장께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심사를 함께해 주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국임에도 학생들을 지도한 지부의 지부장 이하 모든 회원의 노고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협회와 조금은 다른 행다법을 하는 지부도 있어



5월 18일 2일차_중등부 심사



그런 점은 아쉽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예절경연대회에 출품해 주신 지부에 감사하다.”라며 총평을 해 주었다.

3일 차 19일에는 고등부와 대학부 심사를 했다. 심사를 위원으로는 강정자, 김가영, 박광옥, 차영민 부회장과 김미숙 강원지부장, 박경숙 대구경북 제1지부장, 김태임 아산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장이 맡아주었다.

오전 11시 중등부 심사를 시작하면서 최소연 이사장은 “영상 심사를 하다 보니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습니다.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심사는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내가 안다고, 내가 가르쳤다고 점수

를 높게 주는 심사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심사할 인원이 많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리고 멀리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합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심사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에도 진행되었다. 오전에 고등부 심사를 했고, 오후에는 대학부 심사가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출품된 동영상을 보면서 지부에서 교육하는 방법에 약간씩 틀린 점들이 있었습니다. 틀린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육한 사람이라며, 다음에는 별도로 보수교육으로 그런 것들이 개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준 각 지부장과 지부에 감사합니다. 비대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거둔 것은 지부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예절경연대회에 동영상을 출품한 모든 지부에 감사합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3일간 치러진 제25회 온라인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는 한국차문화협회 설립 이후 최초로 동영상 심



5월 19일 3일차_고등부와 대학부 심사



사를 하였다. 3일 동안 심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동영상에 출품한 학생들 대다수는 우리 협회의 행다법을 따라 했지만, 일부분은 약간 변형된 느낌이 있었다. 이는 추후 개선할 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도 많은 학생이 참석하고 많은 지부가 참석한 제25회 청소년차문화 화예절경연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출진하여 수상한 모든 학생에게 축하하고, 수상은 못 했지만 열심히 노력한 모든 학생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란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제25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차문화전 및 차예절 경연대회 수상자 명단

대 학 부 (수상자 총 16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대상(문체부장관)	유 * 주	가천대학교	
2	최우수상(가천대 총장)	서 * 민	서울신학대	
3	최우수상	조 * 현	가천대학교	
4	최우수상	김 * 립	가천대학교	
5	최우수상(규방다례)	남 * 수	가천대학교	
6	최우수상(협회)	김 * 별	전주대학교	
7	우수상	박 *	가천대학교	
8	우수상(차문화상)	윤 * 빈	가천대학교	
9	우수상(차문화상)	이 * 인	한국폴리텍대학	
10	우수상(인성예절상)	응 * 안	가천대학교	
11	우수상(인성예절상)	김 * 옥	조선대학교	
12	우수상(특별상)	윤 * 엘	가천대학교	
13	장려상	정 * 수	가천대학교	
14	장려상	권 * 은	가천대학교	
15	장려상	이 * 진	가천대학교	
16	장려상	김 * 유	조선대학교	

고등부 (수상자 총 16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가천대총장)	김 * 나	영광고등학교	
2	최우수상	정 * 채	영광고등학교	
3	최우수상	박 * 흥	채드워국제학교	
4	최우수상(규방다례)	박 * 수	박문여자고등학교	
5	최우수상(협회)	김 * 태	하늘고등학교	
6	우수상	김 * 채	하늘고등학교	
7	우수상(차문화상)	서 * 재	전주영생고등학교	
8	우수상(차문화상)	최 * 민	하늘고등학교	
9	우수상(인성예절상)	이 * 승	전주동암고등학교	
10	우수상(인성예절상)	김 * 언	하늘고등학교	
11	우수상(특별상)	김 * 은	하늘고등학교	
12	장려상	임 * 환	하늘고등학교	
13	장려상	서 * 성	하늘고등학교	
14	장려상	김 * 정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15	장려상	전 * 국	하늘고등학교	
16	장려상	임 * 옥	하늘고등학교	

중등부 (수상자 총 22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가천대총장)	이 * 아	나주반남중학교	
2	최우수상	나 * 아	나주반남중학교	
3	최우수상	김 * 정	봉영여자중학교	
4	최우수상(규방다례)	오 * 성	과천문원중학교	
5	최우수상(협회)	나 * 희	고척중학교	
6	우수상	손 * 경	나주반남중학교	
7	우수상(차문화상)	임 * 준	목일중학교	
8	우수상(차문화상)	이 * 영	용정중학교	
9	우수상(인성예절상)	김 * 찬	제주대사범대학부설중학교	
10	우수상(인성예절상)	권 * 현	용정중학교	
11	우수상(특별상)	김 * 유	나주반남중학교	
12	장려상	김 * 원	나주반남중학교	
13	장려상	안 * 우	나주반남중학교	
14	장려상	고 * 란	상인천여자중학교	
15	장려상	이 * 준	용정중학교	
16	장려상	이 * 온	용정중학교	
17	장려상	강 * 민	용정중학교	
18	장려상	임 * 혁	용정중학교	
19	장려상	이 * 인	용정중학교	
20	장려상	박 * 서	용정중학교	
21	장려상	김 * 효	용정중학교	
22	장려상	김 * 은	전주용흥중학교	

초등부B (수상자 총 21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가천대총장)	최 * 영	향림초등학교	
2	최우수상	김 * 하	덕의초등학교	
3	최우수상	김 * 린	노형초등학교	
4	최우수상(규방다례)	이 * 현	수원초등학교	
5	최우수상(협회)	김 * 빈	부평남초등학교	
6	우수상	나 * 혁	고산초등학교	
7	우수상(차문화상)	김 * 은	첨단초등학교	
8	우수상(차문화상)	박 * 성	회전초등학교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9	우수상(인성예절상)	백 * 은	법성포초등학교	
10	우수상(인성예절상)	이 * 빈	회전초등학교	
11	우수상(특별상)	임 * 솔	전주용흥초등학교	
12	특별상	정 * 진	정각초등학교	
13	장려상	정 * 희	전주삼천남초등학교	
14	장려상	정 * 진	정각초등학교	
15	장려상	박 * 원	진해도초등학교	
16	장려상	서 * 주	회전초등학교	
17	장려상	박 * 혜	회전초등학교	
18	장려상	신 * 은	마산진동초등학교	
19	장려상	윤 * 빈	회전초등학교	
20	장려상	전 * 빈	마산진동초등학교	
21	장려상	이 * 은	마산진동초등학교	

유치부, 초등부A (수상자 총 17명)				
번호	수상명	성 명	학교명	비고
1	최우수상(가천대총장)	박 * 빈	우석초등학교	
2	최우수상	최 * 영	향림초등학교	
3	최우수상	이 * 울	만월초등학교	
4	최우수상(규방다례)	김 * 연	어린이집	
5	최우수상(협회)	김 * 나	어린이집	
6	우수상	고 * 아	법성포초등학교	
7	우수상(차문화상)	김 * 인	어린이집	
8	우수상(차문화상)	박 * 연	동명초등학교	
9	우수상(인성예절상)	김 * 울	전주용흥초등학교	
10	우수상(인성예절상)	백 * 진	회전초등학교	
11	우수상(특별상)	남 * 울	유치원	
12	장려상	이 * 연	어린이집	
13	장려상	설 * 엘	어린이집	
14	장려상	양 * 아	양도초등학교	
15	장려상	김 * 서	어린이집	
16	장려상	백 * 진	회전초등학교	
17	장려상	김 * 호	회전초등학교	

스승의 날 맞아 명예이사장님께 헌다식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추모

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해 차영민 부회장 등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5월 11일 분당메모리얼파크에서 이귀례 명예이사장님께 헌다식을 가졌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에 있는 이수자들이 모여 헌다식과 함께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명예이사장을 추모했다.



지난 5월 11일 오후 2시 분당 메모리얼파크 이귀례 명예이사장님 산소에서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 등이 모여 헌다식을 가졌다.

5월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올라온 규방다례 이수자와 협회 임원 등은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며 명예이사장을 추모했다.

화창한 날씨에 진행된 헌다식에 박혜란 이수자가 찬조금 십만 원, 유미현 이수자와 연규남 이수자가 꽃바구니와 난 화분, 경남지부 강정자 이수자가 케이크 등을 협찬해 주었다.

특히 지방에서 올라온 이수자들을 보고, 명예이사장님께서도 좋아했을 것이



라는 최소연 이사장의 얼굴에는 명예이사장님에 대한 그리움이 흠뻑 묻어나 있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수자들은 지난 5월 10일에 인천에서 1박을 하고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편, 스승의 날을 맞아 최소연 이사장님께 규방다례 이수자들이 마음을 모아 인사를 드렸다. 최소연 이사장은 “어제부터 올라와 행다 연습을 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촬영까지 하느라 수고했습니다. 또 이렇게 명예이사장님께 헌다식을 거행하게 되어 무척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협력한 덕분에 우리 협회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협회 발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말을 했다.

명예이사장님께 헌다식에 이어 최소연 이사장님께 ‘스승의 은혜’를 합창하면서 그 고마움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이사장님께서 미리 준비해주신 찰밥과 겉절이, 김 등으로 산소 앞에서 맛있게 점심을 했다. 이막동 이사가 준비한 김치는 맛이 일품이었다. 더없이 맑고 화창한 5월의 하늘 아래 최소연 이사장과 이수자들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



3월 정기이사회 개최

신임 조영아 인천지부장, 이금숙, 노영숙 이사 임명장 수여

지난 3월 8일 협회 3층 교육장에서 3월 정기이사회가 화상회의로 열렸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둬지는 상황이어서 부득이 수도권 및 경남지부 강정자 부회장과 대구경북제1지부 박경숙 지부장, 충남지부 강순란 부회장만 참석하였다.

3월 정기이사회는 성원이 충족되어 진행되었다. 먼저 정기이사회 개최, 성원 보고, 이사장님 말씀, 안건 상정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최소연 이사장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거둬져 부득이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코로나가 종식되어 하루빨리 만나서 회의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정기이사회 안건에 대해 허심탄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했다. 협회 3층에는 협회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과 인천지부장을 비롯하여 인천지부 및 서울지부 이사님들이 참석했다. 민달래 간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정기이사회 안건 상정 및 토의에서 제1안 2021년도 감사보고가 있었다. 강희옥 감사는 “(사)한국차문화협회의 202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제32기 사업연도에 대한 회계 및 업무감사를 했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처리하였다”라고 보고했다. 감사보고에 이어 신임 지부장 및 이사로 임명된 조영아 인천지부장, 이



강희옥 감사 감사보고



조영아 인천지부장



이금숙 이사



노영숙 이사

금숙 인천지부 이사, 노영숙 광주지부 이사에게 최소연 이사장이 직접 임명장 수여했다. 최소연 이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부장과 이사의 직책을 맡아준 조영아 인천지부장, 이금숙 인천지부 이사, 노영숙 광주지부 이사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협회 및 각 지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안건 토의에서 자격검정 및 제58회 동계 졸업식 결과 보고, 제65기 지도사범 교육계획, 제20기 한국차문화대학원 하반기 교육계획, 제33회 전국 차인 큰잔치 차음식 경연대회 계획, 2022년 행안부 공익사업계획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이 있었다. 3월 정기이사회에서 올라온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회의를 마쳤다. ☺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수업 가져

최소연 이사장과 조교 등 대거 참석

협회는 지는 5월 7일 인천 규방다례보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학원 전문사범 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그동안 대면 수업에 목말라 했던 대학원생들에겐 단비와도 같았다.



아침 일찍 지방에서 출발한 대학원생들이 하나둘 모여면서 대면 수업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다. 오랜만에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된 최소연 이사장께서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었다.

최소연 이사장은 옷고름 매는 법부터 방석에 앉는 법 등 기초적인 것부터 몸 동작, 손동작까지 행다의 모든 부분을 하나하나 지도해 주었다. 실제로 한 명씩 지도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했다.

첫 시간에는 뵈는 절 수업을 했다. 이후에는 배례와 상례절과 생활다례를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도 하나라도 더 배우려



고 수업에 집중했고, 최소연 이사장도 하나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 열정을 다했다.

대학원 입학식 이후 각 지부의 대학원생들이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조금은 서먹서먹할 것이라 믿었던 수업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회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와 동시에 최소연 이사장의 명강의에 수업 내내 웃음꽃이 피었다.

최소연 이사장과 함께 수업에 참석한 조영아 인천지부장, 이막동 전 인천지부장, 이광용 이사, 최지원 이사, 강희옥 감사, 최성미 전수 장학생 등이 함께했다. 대학원 입학식 이후 각 지부의 학생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였음에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어, 보는 사람들에게 역시 대학원생들이라 남다르다는 평을 들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수업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원래는 규방다례까지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배례와 생활차 등을 좀 더 심도 있게 하는 관계로 규방다례는 다음 수업에 하기로 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에서 모인 대학원생들은 모처럼의 대면 수업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었고, 다음 수업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았다. ❷

교육위원회 강화도에서 개최

차문화 편집회의,
하동세계엑스포 간담회 등 토론

협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4월 26일 강화도 조양방직에서 열렸다. 최소연 이사장을 비롯하여 김가영, 차영민, 박광옥 부회장과 민달래 간사가 참석하였다.

위드 코로나19가 되면서 협회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온갖 꽃이 피어나고, 봄기운이 완연한 날씨에 조양방직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안건은 2020년 여름호 '차문화'지 편집 건과 제25회 청소년 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 안건, 당동유 협업관련 MOU 체결 건, 2023년 하동세계엑스포(23.5.4~6.3) 간담회 건, 한국의 차문화 일본어 번역 건, 규방다례 홍보영상 촬영 건 등을 논의하였다.

각 안건에 대한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차문화' 여름호 편집에 대한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었다. 또한 제25회 청소년 온라인 차예절 경연대회에서는 각 지부의 접수 현황, 경연대회 심사위원 등에 관한 토론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하동세계엑스포 간담회에 협회에서는 강정자 부회장과 황미경 경남지부장, 조희옥 이사, 민달래 간사 등이 참석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오전 중 회의를 마치고 조양방직을 둘러보았다. 조양방직은 강화도의 명물로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다. 조양방직은 1930~40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곳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어 핫플레이스로 주목받는 곳이다. 최소연 이사장님의 안내로 이곳저곳 둘러본 교육위원들은 "앞으로 교육위원 회의는 각 지역에서도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자"라고 입을 모았다. ☕



행정안전부 202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재미있는 인성 차(茶) 놀이' 선정

◆ 2022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 지원사업

'재미있는 인성 차(茶) 놀이' 교육 계획안

- 대상
초등학생
- 기관
학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 참여인원
1회 6명 이상
- 교육 횟수 : 9회

행사명	회	시간	내용	진행
재미있는 인성 차(茶) 놀이	1	100분	예(禮)_함께 인사 나누어요	ppt, 다례체험
	2	100분	배려_친구를 생각하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ppt, 다례체험
	3	100분	협동_친구와 함께하면 위해요	ppt, 다례체험
	4	100분	존중_좋은 말, 좋은 표정은 어떻게 하나요	ppt, 다례체험
	5	100분	책임_약속을 잘 지켜요	ppt, 다례체험
	6	100분	소통_차(茶) 나눔으로 소통해요	ppt, 다례체험
	7	100분	정직_거짓없는 마음 정직한 마음	ppt, 다례체험
	8	100분	효(孝)_차(茶)를 맛있게 우려요	ppt, 다례체험
	9	100분	감시하는 마음 표현해 보기	찾자리, 원지쓰기

(사)한국차문화협회 최소연 이사장은 '차의 정신과 차생활로 인성 8덕목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찾아가는 차(茶)생활 찾상머리 교육', 2020년 '찾상머리 인성교육 우리 가 달라졌어요', 2021년에는 '차와 인성'에 이어 2022년 '재미있는 인성 차(茶) 놀이'로 꾸준히 청소년 인성교육에 앞장서 협회 전국 12개 지부와 함께 우리차 생활다례 체험으로 인성 8덕목을 지도하고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협회는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차문화'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간담회 강정자 협회 부회장 참석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간담회 참석



지난 5월 4일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차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주체한 하동 세계차엑스포 간담회에 한국차문화협회 강정자 부회장, 황미경 경남지부장, 조희옥 이사, 민달래 간사 등이 참석했다.



하동차세계엑스포는 2023년 5월 4일부터 6월 3일(31일)까지 자연의 향기, 건 강한 미래, 차(茶)란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창원, 김해 등 경남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하동차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성공을 기원하고, 차인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전국 차와 관련된 유관 단체의 장들을 초대하여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다.

2023년 하동차세계엑스포는 7개 주제로 펼쳐진다. 스마트 엑스포에서는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차산업의 발전모색 및 새로운 스마트 관광사업 촉진과 모바일 체험 시스템, 스마트 안내시스템, 스마트-모빌리티 구축 및 운영 등으로 운영한다. 공존 엑스포에서는 차(茶) 연계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엑스포를 통한 전 세계 공존문화 조성과 대한민국 차문화 유산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홍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비즈니스 엑스포에서는 “K-TEA” 산업을 활성화하여 “K-Food”와 더불어 대한민국 차(茶) 산업 선도, 다양한 차 농가 소득증대 및 국내외 유통 바이어 상담 및 해외수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웰니스 엑스포에서는 전통 생산차발 관광 자원화 등 몸과 마음의 치유·힐링 관광기반 구축, 대중적으로 차(茶)문화 유행을 선도하여 차(茶) 소비 증대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동차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한국차문화협회 강정자 부회장은 “2023 하동차세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또한 하동차세계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한국차문화협회는 한국의 차문화 발전을 위해 지난 30여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차문화를 위해 헌신해 온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 2023 하동차세계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와 동시에 조직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 합니다. 첫째, 하동차세계엑스포에 참석하는 내외 귀빈들에게 차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식당에서 차를 대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엽차라고 하여 우리 문화에는 차를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계승하기 위해서 식당에서 우리의 엽차를 대접했으면 합니다. 둘째 차의 효능에 대해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차에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토피 피부에 우리 녹차가 좋습니다. 이런 효능을 널리 알렸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5월은 가족의 달이자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5월에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식’을 열어주는 행사를 엑스포 기간 동안에 했으면 합니다. 이런 다채로운 행사를 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차문화협회는 한국의 차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 열리는 차엑스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최소연 이사장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최소연 이사장님을 대신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간담회가 있던 5월의 하동은 그야말로 차의 물결로 가득했다. ☕

우리나라 녹차의 태생지, 다솔사 녹차밭으로 둘러싸인 녹차의 고향

다솔사는 우리 차의 맥을 잇고 있는 차의 성지이자 녹차의 태생지이다. 다솔사(多率寺)는 인도 스님 연기조사가 창건했을 당시에는 영악사(靈岳寺)라 불렸다. 그 후 의상대사 때는 영봉사(靈鳳寺)로 불리다 조선국사 때부터는 다시 다솔사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녹차의 태생지

서울에서 다솔사까지 가는 여정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대략 5시간 정도가 걸리는 먼 곳이다. 서울남부터미널에서 진교시 외버스터미널까지 간 다음 그곳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빠르다.

다솔사는 경남 사천 곤명면에 있는 절로 차인들에게는 익히 알려진 고찰이다. 매년 차인들이 다솔사를 방문하여 차를 따고, 덪는 차문화 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협회에서도 매년 각 지부 사범 교육생 등이 다솔사를 방문하여 차 체험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다솔사는 봉명산(鳳鳴山) 자락에 터를 잡은 유서 깊은 고찰로 그리 큰 편은 아니다. 다솔사 중건 비

문에 의하면 신라 지증왕 4년(503)에 연기조사가 창건해 최초의 절 이름을 영악사라 했고, 선덕왕 5년(636)에 자장율사가 중창하여 다솔사(多率寺)라 불렀다. 다솔사라고 부른 이유는 주산인 봉명산이 마치 대장군이 앉아서 군사를 거느린 것처럼 보였다는 설이 유력하다.

다솔사가 유명한 것은 1500년이라는 고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 유명해진 것은 녹차의 태생지라는 것 때문이다. 다솔사는 우리나라 녹차의 태생지로서 다솔사를 창건한 연기조사나 의상대사, 도선국사 등이 모두 이름난 차승(茶僧)이었다. 다솔사를 오래전부터 차사(茶寺)라고 하였지만, 명실공히 차절로 이름을 굳힌 것은 효당 최범술(1904~1979) 스님 때부터이다. 효당은 1904년 다솔사 앞마을에서 태어나 1979년 75세로 입적할 때까지 우리나라 차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차승(茶僧)이다.

다솔사 뒤편에는 야생 차나무가 자라고 있다. 다솔사에서는 곡우 전후로 차잎을 따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늦어지고 있다. 작년에 심한 냉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해마다 5월이면 다솔사 주변의 야산에는 차나무 잎을 따서 끓는 물에 살짝 데치거나, 술에 띄운 차잎을 찜고 고형 틀에 넣어 동전같이 만드는 소위 전차(錢茶)를 만들었다. 새끼에 꿰어 매달아 두는 이 차는 감기나 몸살 등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어도 삶아 마셨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다.

다솔사가 차문화 성지이면서 독립운동의 모태임을 모르는 이가 많다. 독립운동의 모태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는 만해 한용운을 비롯하여 김범부, 김범린, 변영만, 변영로, 변영태, 응송 박영희 등 쟁쟁한 독립투사들이 다솔사를 거점으로 독립운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다솔사 주변 야생차밭



1960년대 다솔사 주변에 야생차밭을 조성한 봉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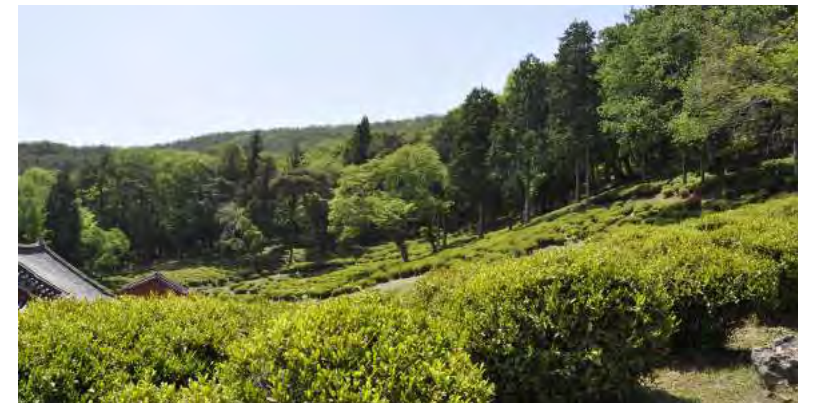
전통 차의 맥을 잇고 있는 봉화 스님

일찍이 효당은 다솔사 녹차를 비교한 적이 있다. 그는 다솔사 녹차의 품미는 하동 화개 차보다도 구례 화엄사 차보다도 나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똑같은 분량의 물과 같은 조건 아래 쇠고기 살점을 각각의 탕에 넣어 달여 본 결과, 화엄사 차는 그 살점이 단단하고, 화개 차는 약간 부드러워 물렁물렁해졌으며, 다솔사 차는 흐물흐물 물러 그 모양이 없어질 정도라고 평했다. 다시 말해서 다솔사 차가 가장 우수한 차임을 증명했다.

효당 최범술의 차맥을 잇고 있는 분이 봉화 스님이다. 봉화 스님은 13살에 다솔사에 출가하여 효당 최범술 스님을 시봉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차의 맥을 지켜오고 있다. 지금은 다솔사가 아닌 원효정사에서 불사를 일으키고 있다. 다솔사 경내와 야생차밭을 둘러본 다음 원효정사에 계신 봉화 스님을 만나 다담(茶談) 시간을 가졌다.

“다솔사 주변에 자생하던 차나무의 씨를 받아 절 뒤쪽 비탈에 차밭을 나와 효당 스님이 만들었지. 효당 스님은 ‘차를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라는 음다흥국(飲茶興國)을 몸소 실천한 차인 이었지. 지금 보고 있는 차밭은 1960년대부터 조성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다솔사에서 나오는 차를 이용해서 반야로(般若露) 차를 만든 것이 효당이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가 반야로 차를 만들고 있지.”

아직도 정정한 봉화 스님은 차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었다. 특히 봉화 스님은 우리 협회 이귀례 명예이사장과 함께 차 운동을 펼친 차인 1세대이기도 하다. 봉화 스님은 우리 협회 충남지부 지도사범을 교육하기도





하였고, 이귀례 명예이사장과 함께 차부흥 운동에 앞장선 차인이기도 하다. 오랫동안 다솔사에서 효당을 모셨던 봉화 스님은 “효당 스님은 우리 전통 차의 전수자이자 전개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 전통 차의 가장 중요한 분이 효당이라고 했다. 효당은 가고 없어도 그 뜻을 받들어 그대로 차 맥을 잇고 있는 봉화 스님이 있어 왠지 든든한 생각이 들었다. 봉화 스님이 생산하고 있는 반야로 차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차이지만, 차인들 세계에서는 명차로 통한다. 쉽게 맛볼 수 없는 반야로 차는 철저한 수공으로 생산량이 많지 않다. 차를 좋아하는 차인들 몇 사람만 특별히 맛볼 수 있을 뿐이다.

추사가 쓴 죽로지실(竹爐之室) 현판

다솔사는 차문화의 성지이자 독립운동의 발원지이자 문화재가 많은 곳이다. 특히 일제강점기 한용운 스님이 수도하던 안심료(安心寮)는 독립선언서 공약삼장을 작성 및 항일기지의 역할을 했던 곳이었으며, 소설가 김동리가 한동안 머물러 『등신불』을 집필했던 곳이기도 하다.

다솔사 정면에는 중층누각 구조의 대양루가 있다. 대양루는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83호로 지정되었으며, 18세기 대표적인 건축양식이다. 대양루를 지나면 바로 적멸보궁(寂滅寶宮)이 나온다. 적멸보궁(寂滅寶宮)은 석가모니불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봉안한 사찰로 따로 불상을 봉안하지 않고 불단(佛壇)만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적멸(寂滅)은 모든 번뇌가 남김없이 소멸하여 고요해진 열반의 상태를 말하고, 보궁(寶宮)은 보배같이 귀한 궁전이라는 뜻이다. 이런

이름을 가진 곳은 여기 말고도 다섯 곳이 더 있다.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 오대산 상원사 적멸보궁, 정선 정암사 적멸보궁, 영월 법흥사 적멸보궁, 양산 통도사 적멸보궁이다.

다솔사 종무소 옆에는 추사 김정희가 쓴 ‘죽로지실(竹爐之室)’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친구인 황상이 차를 선물로 보내오자 추사 김정희가 답례로 써준 글씨이다. 죽로지실(竹爐之室)에서 지실(之室)은 차를 끓이는 죽로가 있는 방이라는 뜻이고, 죽로(竹爐)는 걸을 뜨겁지 않게 대나무로 감싸서 만든 화로라고 한다. 차와 관련된 절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현판이다. 종무소 위 쪽으로는 진신사리탑과 응진전, 극락전 등이 적멸보궁을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그 뒤로는 다솔사를 중심으로 야생차밭이 부챗살처럼 퍼져 있다.

다솔사 뒤편 야생차밭에는 나이 지긋한 보살들이 차밭을 따고 있었다. 차밭을 따는 보살들의 모습에서 수행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무아지경에서 차밭을 따는 보살들의 모습이 마치 선(禪) 수행을 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한 잎의 차가 다닥에 올라올 때까지의 과정은 그야말로 수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노동을 선의 수행 방법의 하나라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밭 하나하나에 스며 있는 수많은 번뇌를 떨치면서 나도 차밭을 따다. 한 잎 한 잎 차밭을 따면서 내 속의 번뇌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다선일여(茶禪一如)가 이런 느낌이 아닐까. ☯



세계 3대 중국 기행문으로 손꼽히는 생존의 기록 - 최부의 표해록

글을 모르면 눈뜬장님이라고 부른다. 보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서울에 가 본 사람과 안 간 사람이 싸우면 안 간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체험이 중요하다. 간접 경험 중 가장 좋은 것은 독서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최부의(1454~1504) 『표해록』은 1480년대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제주에서 중국까지, 아주 특별한 표류기

최부의 『표해록』에 대해 들어 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흔치 않다. 왜냐하면 인터넷과 뉴스를 틀기만 해도 중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00년 전만 해도 중국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만이 가 본 별천지였을 것이다. 그중에서 사대부 관리가 중국에서 6개월간 체류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표해록』을 쓴 최부는 1454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1477년 진사가 되었고, 1487년 9월 추쇄경차관(도망간 노비를 찾아 체포하는 벼슬)으로 임명되어 제주로 갔다. 그러던 중 최부는 1488년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 듣고, 43명을 이끌고 고향인 나주로 가는 뱃길에 오른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표해록

않아 풍랑을 만난 최부 일행의 배는 바다를 표류하게 된다.

표류한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중국 절강성(저장성) 연해에 도착한다. 그 과정에서 최부 일행은 두 차례나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육지에 오르거리는 중국인들에게 왜구로 오인을 받는 등 고초를 겪는다. 하지만 최부가 조선 관리임을 알게 된 현지인들에게 호송을 받으며, 명나라 수도인 북경으로 향한다. 운하와 육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북경에 도착한 최부 일행은 북경에서 명나라 황제 효종을 알현했다. 이후 요동반도를 거쳐 약 6개월 만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온다. 표류하는 동안 단 한 명의 희생자나 낙오 없이 전원이 돌아왔다. 이후 최부가 성종의 명에 따라 약 일주일간 청와역에 머물며 완성한 책이 바로 『표해록』이다.

『표해록』에는 15세기 중국의 기후·산천·도로·풍속·군사·교통·도시 풍경 등이 세밀히 묘사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부는 특히 운하와 수차에 큰 관심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중국을 지나면서 만난 사람들과 나눈 대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가진 중국에 대한 인식과 중국인들이 조선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5세기 중국, 귀중한 자료

최부는 『표해록』을 집필한 이후 또다시 명나라로 가는 서장관에 임명되어, 다시 한번 중국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 조선에서 명나라를 가장 잘 아는 관리로 인정받은 셈이다. 그러나 최부는 이때 중



국 방문 기록은 남기지 않았으며, 이후 여러 벼슬을 거치다 1498년(연산군 4) 무오사화 때 단천으로 유배되어 6년을 지내다 갑자사화가 일어난 1504년 참형을 당했다.

『표해록』의 1차 독자는 보고서를 제출하게 명한 성종이지만, 외국 견문 보고서를 넘어 국내외에서 흥미로운 읽을거리로도 인기를 끌었다. 국내에서도 여러 판본이 출판되었으며, 특히 청나라와 외교관계가 단절되어 대륙 소식에 목말라 하던 일본에서는 유학자 기요타 기미카네가 일본어로 번역하고 삽화가 지 담아 1769년에 『당도행정기』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또한 1965년에는 미국에서 영어로 번역되었고, 중국 베이징대학에서 중국어로도 번역되었으며, 1995년에는 중국에서 한·중·일 학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부 표해록 연구 출판좌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표해록』은 500여 년 전 목숨을 걸고 바다를 표류하고 낯선 땅을 경험한 뒤 남긴 기록이지만, 현재까지도 그 가치를 이어 오고 있는 귀중한 자료다.

사신 가운데 일부는 중국에 다녀온 기록을 남겼는데, 명나라 시대에는 ‘조천록朝天錄’, 청나라 시대에는 ‘연행록燕行錄’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사신들은 정해진 길로만 다녔기 때문에 북경 남쪽으로는 내려갈 수 없었다. 조선 시대에 북경 남쪽을 가 본 사람은 주로 표류한 사람들이었는데, 대부분은 문자

를 모르는 어부였으므로 보고 들은 것을 글로 남기지 못했다. 중국과 관련된 여러 도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부의 『표해록』이다. 『표해록』은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엔닌의 『입당구법순례행기』와 더불어 세계 3대 중국 기행문으로 손꼽힌다.

어느 지역을 방문하든 그곳의 속살을 보려면 민중들의 삶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민중들의 민낯을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나아갈 길을 기록한 『표해록』은 아직도 우리에게 유효한 책임이 분명하다. 날씨 좋은 이 계절 『표해록』을 통해 삶의 길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



출처: 조선 선비 최부, 뜻밖의 중국 견문 / 국립제주박물관

여름, 감사의 차

박숙희
한문교육학 박사,
협회 부회장,
충북지부장



때 이른 여름이 오더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
날이 더워야 벼가 잘 익는다고 했던가.
아직도 두려운 감염병은 우리 옆에 있건만 그나마 옆 사람을 마주 볼 여유를 좀 누리 본다.

그해 여름 - 아버지

시인 김용수

대지가 뒤끓는 대낮
대청마루 뒤편길은
여름 바람이 몰래 지나가는 길

뒷문 열어제치면
붓물 터지듯 쏟아지는 술술이 바람

반질반질한 대청마루 바닥에
목침을 베고 누워
땀창을 부리시던 아버지

매미 소리 감상하며
소르르 여름을 즐기시던 우리 아버지

전남 완도 출생의 시인 김용수(1952~) 님의 시 <그해 여름 - 아버지>이다.
대청마루를 지나는 시원한 바람 한 줄기가 그리운 날이다.

초의선사는 『다신전』에서 '차 마실 때 손이 적어야 귀하고 손이 많으면 시끄럽고, 시끄러우면 아취가 모자란다(飲茶以客少爲貴, 客衆則喧, 喧則雅趣乏矣)'라고 했다. 차는 고요한 삶의 여유를 주는 홍취의 수단이기 때문이리라.

차시는 고려 유학자들에게는 탈속적 면모보다는 현실참여 이외에 느끼는 한가와 홍취의 수단으로 많이 저작되었다. 그 하나인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 실린 <잠시 감불사에 머물다가 연로하신 주지 스님께 드

림(暫遊感佛寺 贈堂頭老比丘)>이라는 시 속에는 자연을 벗 삼아 즐기는 여흥이 가득하다.

賴因飛語落蠻鄉
得見慈和佛法王
細破蘚紋行石徑
曲穿林罅覓蓮莊
海心遙島燈抽炷
屋角修篁槩聳鋸
樓外有竹園植植麻立
問道已忘流謫恨
楚臣胡奈浪沉湘

든소문에 휩싸여 남쪽 고을로 낙향하여
문득 자비롭고 온화한 부처님을 뵈었네!
이끼 낀 길 밟으며 돌길 사이로 걸어
굽이진 숲 사이를 헤치며 절을 찾았네
바다 한가운데 외로운 섬에 향불 피어오르고
집 모퉁이 대숲엔 창날처럼 대나무들이 솟아있네
누대 밖 대나무밭에 대가 삼대같이 서 있었다.
진리를 찾다 귀양살이 한은 저절로 잊혔건만
초나라 굴원은 어찌 귀양살이 못이겨 상강(湘江)에 투신했나

蟻國升沉一夢空
却因僧舍笑談同
浮名摠落心虛外
妙道猶存目擊中
石鼎煎茶香乳白
塲爐撥火晚霞紅
人間榮辱粗嘗了
從此湖山作浪翁

허망한 부귀영화 번영과 쇠락은 꿈처럼 덧없으니
그저 승방(僧房)에 모여앉아 담소나 즐길 뿐
헛된 명성은 마음 밖으로 떨어진 지 오래고
오묘한 법도는 오히려 눈 앞에 펼쳐지네
돌 솥에 차를 끓이니 젓빛 차의 그윽한 향기
차들 끓는 화롯불은 저녁놀이 양 붉구나
인간의 영욕을 대략 맛보았으니
이제 경치 좋은 곳에서 신선놀음이나 즐기리.

백운거사(白雲居士) 이규보(1168~1241)는 재능이 뛰어난 문사(文士)였으나 국자시(國子試)에 연속 낙방하였다. 1189년(명종 19) 5월 유공권(柳公權)이 좌수(座首)가 되어 실시한 국자시에 네 번째 응시해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나 관직을 받지 못하자, 25세 때 개경의 천마산(天磨山)에 들어가 시문을 짓는 등 세상을 관조하며 지냈다.

32세 때 최충헌의 초청시회(招請詩會)에서 최충헌을 국가적인 대 공로자로 칭송하는 시를 짓고 나서야 과거에 급제한 지 10년 만에 사록겸장서기(司錄兼掌書記)로서 전주목(全州牧)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결국 동료의 비방을 받아 1년 6개월 만에 파면당한 후 39세까지 동경군막의 병마목사로 1년 4개월 간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실직자로 지냈다.

전북 부안현 위도 귀양 때 이규보는 감불사를 찾았다. 섬 한가운데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절. 벼슬을 갈구했지만 재주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하는 회한으로 가득한 때 문득 찾은 평온한 사찰은 인생을 관조하는 시간을 마련해 주기에 충분했다.

초신(楚臣)은 전국시대 초(楚)나라 사람 굴원(屈原)을 말한다. 그는 초 회왕(楚懷王) 때 삼려대부(三閭大夫)가 되었다가 모함을 받아 귀양 간 후 망국의 한을 이기지 못해 상강(湘江)에 투신하였다.

전국시대의 혼란기에 정치적 폐단을 없애는 개혁을 추구했으나, 모함과 배척으로 유배와 복권을 반복하다가, 쇠락의 길을 걷는 나라의 상황에 절망하여 먹라수에 투신한 굴원을 자신과 같다고 여기던 자신을 추스르며 새로운 다짐을 해본다.

의국(蟻國)은 중국 당나라 순우분(淳于棼)이 꿈속에서 머물던 개미 나라를 가리킨다. 순우분은 술에 취하여 왜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괴안국(槐安國)의 부마가 되어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년 동안 영화를 누렸는데 깨어보니 행랑에서 자고 있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꿈과 같이 헛되고 헛되다. 한갓 담소만도 못한 것에 얽매인 자신이 헛헛하다,

젓빛처럼 흰 차를 마시며 그 향기를 느끼는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귀중한가. 연로하신 노스님이 손수 돌솥에 잘 끓인 차물로 젓같이 향기로운 차를 내니, 그 한 잔의 차로 세속의 때를 씻고 초야에 묻혀 살고 싶은 마음이다.

‘호산(湖山)’은 신선이 사는 경치 좋은 곳을 말한다. 이곳 감불사는 현실 속에 살아 있는 신선 세계이다. 바다 한가운데 모든 세상과 동떨어진 대숲으로 둘러싸인 곳. 노(老)스님의 차 속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법력은 위압이 아닌 절대 자유를 저절로 누리게 한다.

한 잔의 차 속에 인생의 헛된 영욕을 씻으며 자유롭게 삶을 관조하고 싶다. 한 여름 대청마루 위 꿈처럼 무한히 자유로운 나를 낮잠 한 줍 속에 담아본다. ☁

‘완경’에 대한 바른 이해로 갱년기를 극복하는 법

갱년기는 정체성의 종말이 아닌 여성의 ‘완성기’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갱년기는 인체가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로, 여성의 경우 월경이 정지되는 전후의 시기를 주로 ‘갱년기’로 표현합니다. 특별하게 ‘갱년기’라는 이름까지 붙인 것은, 이 시기에 겪는 신체적인 증상들은 때로는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힘들고, 합병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월경이 중단되는 현상인 폐경은, 과거에는 ‘닫다’라는 의미로 폐경(閉經)이라고 불렀지만, 최근에는 완경(完經)이라고 말합니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 종말이 아닌 완성의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인문학적으로 ‘인생의 가을’, ‘인생의 사춘기’인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겪듯이 갱년기도 호르몬 변화로 인한 증상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호르몬은 신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체온조절과 기억력에 관여하고 뼈의 강도 유지, 질과 방광의 점막 보호,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낮추고 복부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 뇌에서 온도를 조절하는 중추가 제 기능을 못해 안면 홍조, 발한, 골다공증, 질 건조 등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기는 칼로 무를 자르듯이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1~2년간은 생리가 불규칙해지며 폐경 이행기를 지나게 됩니다. 1년 이상 생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를 완경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45~55세 사이의 완경은 정상입니다. 다만 난소제거술로 인한 인위적 폐경, 45세 이전 월경이 중단되는 조기

폐경 등은 질환에 의한 것인지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갱년기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설문들이 개발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MRSII(갱년기 정도 평가지수) 설문 11개 문항으로 갱년기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의 갱년기지수는? (MRSII)

모든 점수를 합산한 뒤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각 문항0~4점)

1. 안면 홍조와 발한(갑자기 땀이 나는 증상).
2.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조여드는 느낌이 있다.
3. 잠들기 어렵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
4. 기분이 처지고 슬프고 쉽게 눈물이 나고 의욕이 없으며 감정이 수시로 변한다.
5. 신경이 날카롭고 과민한 느낌이 든다.
6. 불안하고 초조하다.
7. 신체 및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낀다.
8. 성적 욕구가 저하된다.
9. 소변이 자주 마렵다.
10. 질이 건조함을 느낀다.
11. 관절 및 근육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느낀다.

5~8점(Mild)

경미한 상태

9~15점(Moderate)

중증도의 갱년기 상태

16점(Severe)

심한 갱년기 상태

각 문항에 해당하는 점수가 5~8점에 해당하면 경미, 9~15점은 중등도, 16점 이상이면 심한 갱년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갱년기 초기에는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홍조와 수면 장애 증상이 주로 나타나고 중기에는 배뇨(방광) 문제, 질 건조 증상, 말기에는 골다공증과 심혈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갱년기, 폐경은 임상적 증상이 중요한데 자연 폐경은 특별한 병리적, 생리적 원인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지난 1년간 무월경 상태가 지속될 때입니다. 의학적 진단 검사로는 난포자극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에스트라디올(estradiol:E.) 값의 측정으로 최종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궁 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경우, FSH 수치가 30-40m IU/ml 이상이면 폐경으로 진단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일반적으로 반복 측정이 필요합니다.

환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은 자연스러운 과정

환경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지만 장수 시대에 노년기의 삶의 질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폐경 호르몬요법은 환자 개개인의 적응증과 치료의 목표, 나이와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작해야 하는데, 환자의 현재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의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의료진과 상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이라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치료를 받는 모범답안이 있지만, 여성호르몬 치료는 환자의 의지와 가치관,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해서 ‘정답’이 아닌 맞춤치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방암 가족력이 있거나, 직업의 유지 여부, 돌봐야 할 어린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와의 노화 균형 등 환자 개인의 환경이 치료 방법과 방향을 설계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북미 폐경학회는 2014년까지만 해도 호르몬 치료 요법에 대해 단독요법은 7년 이상, 복합요법은 5년 이상 사용을 피할 것을 권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2017년 새로운 연구에서는 60세 이전이나 폐경 발생 후 10년 이내의 환자군에서 치료를 권장하는 등 이전보다 적극적인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

니다. 땀, 홍조 등 혈관 운동계 증상과 비뇨생식기 증상,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 효과 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환자의 증상과 개인적 상황, 위험도, 치료 목적에 따라 환자분들도 적극적인 치료 계획을 의료진과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치료 시기는 60세 이하이거나 폐경이 발생한 지 10년 이내 갱년기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 최대한 효과와 안정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호르몬 대체요법 시작 이후 첫 6개월 이내에는 부정기적 출혈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 외 유방통 및 부종, 일시적인 체중증가, 여드름 등 체제에 따라 양상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해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조절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다발성 난소 부전 또는 45세 이전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조기 폐경이나 수술로 인한 조기 난소 부전을 진단받은 여성의 경우 최소한 평균 폐경 나이인 52세까지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❶



비 오는 날 풍경

글_경남지부 의령 명림지회장 조희옥



시골은 비 오는 날이 쉬는 날, 비데이 놀데이입니다
빗방울이 보슬보슬 정겹습니다
밭작물들이 물을 만나 생글거리고
꽃밭에 꽃들은 흔들흔들 고개를 숙이네요.

이 꽃은 아름다운 여인의 정갈하게 정리된 쪽머리 같지 않나요?
정말 예뻐요. 실제로 보면 더욱더 아름다워요.
이른 봄 심은 으아리꽃이 예쁘게 피었더니
꽃이진 자리에 열매가 맺혔네요.
아낙네 틀어 올린 머리 모양이 어쩔 저리도 예쁠까요
정리된 꽃 진자리 씨앗이 될는지 다음 해 모습이 기다려집니다
명림지회 마당에 핀 꽃들 사범님들께 선물합니다
비는 오지만 향기로운 날 되세요
꽃 향, 풀 향을 전합니다. ☕



그리운 연둣빛 차향

글_경남지부 지도사범 조경숙(자운영청소년회복센터장)

숟가락을 놓고 차를 마신다.
우리 녹차를 좋아하는 사범님들!
한 분 한 분 숙우에 찾아처럼 떠오른다.
어느 봄날, 내가 만든 차 한 봉지에
격찬을 아끼지 않던 K 선생님 덕분에
봄만 되면 우쭐해지기까지 한다.
다 우린 찾아를 꼭꼭 씹는 맛은
쓴맛 단맛 내 인생의 맛처럼
씹쌀하지만, 입 안을 채우는 것은
오직 깊은 여운의 단맛과 싱그러운
향기뿐이다.

짙어가는 봄날 아침 식탁에서
사랑하는 이와 찾자리를 상상해본다.
사월과 오월은 푸른 녹차의 계절이다.
관해다원도 올해 첫물차를 만들었다.
작년에 다녀간 경남지부 사범님들과
교육 사범 반 여러분의 향기가
차향처럼 곳곳하게 떠오릅니다.
그립니다. 곡우 전 차향 연둣빛
사연으로 그립니다. ☕



차는 음료가 아닌 휴머니즘이다

글_광주지부 전문사범 교육생 주미경

3월은 힘이 있다.

살을 에는 강추위와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력한 방역 상황에서도 생명은 땅을 뚫고 세상을 향해 널리 퍼진다.

봄은 시작이고 희망이다.

입학과 새 학기. 새로운 배움의 열망으로 내디딘 발걸음.

무엇인가를 얻고자 시작하는 봄. 저마다의 희망을 품고 새로운 문을 노크한다.

개강식에서 처음 만난 이분(후배)도 자기소개 시간에 마음의 포문을 활짝 열었다.

“저는요, 갱년기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결혼하여 시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직장 다니고 아이들은 다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은 정년 퇴직 후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짓는다고 주말부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만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제게 오춘기와 빈집 증

후군이 한꺼번에 쳐들어와 흔들어 대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을 때 어느 행사장에서 한복을 단아하게 입고 우아하게 차를 내리는 분을 보았어요. ‘아하! 저거다.’ 저는 그분처럼 나이 들고 싶었어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중년을 보내고 싶었던 거지요.”

이후 인터넷 검색으로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를 찾았고, 만남을 예약한 후 방문하였더니 후덕하게 보이신 여자분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환한 미소로 맞아 주시고 “오셨으니 차 한잔하세요.” 하고 따뜻한 차를 따라 주시는데 저의 오감이 열리면서 처음 뵈는 분에게 나의 뉘두리를 3시간가량 여과 없이 퍼부어버렸어요. 그러는 동안 조용히 찻잔에 차를 채워주시면서 “힘들었겠어요. 잘 오셨어요” 하는데 가슴의 체증이 뺨 뚫린 듯하여 오늘 등록하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배시시 웃으며 앉는 그 모습은 흡사 2년 전 나의 모습을 보는 듯하였습니다.

차란 무엇일까? 어떤 마력이 있길래 반평생 동안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한다. 외로운 사람에게는 벗이 되고, 차 벗이 생겨 함께하면 차담으로 후덕해지고, 차 벗이 무리가 되면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니 이 또한 즐거운 일 아닌가? 내 스승이 그랬듯이 나 또한 후배들에게 후덕한 차인으로 넉넉한 품성을 쌓아가고 싶다. 오춘기로 힘들어하는 후배가 지부장님의 인격 앞에 무장해제 해버린 것처럼.

삶에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다.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 차 공부를 선택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고. 참 잘했다고. 함께 가자고. ☺



유치부 어린이들은 미래의 차인

글_서울제1지부장 이석예



4월 25일 경기도 광주에 있는 변명선 이사님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였다.

제25회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 유치부에 참가할 어린이를 격려차 방문했다. 아침에 지도사범 교육생들과 함께 배웠던 초콜릿 쿠키를 구워 포장하고 광주로 향했다.

도착해서 보니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변명선 이사님을 보고 반해버렸다.

선생님은 천직이라는데 더군다나 미취학 아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더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 평소 내 생각이었다. 아직은 도량이 크지 못해 어린아이들과 장시간 함께 있는 것이 상당히 힘든 나로서는 진심으로 존경스럽고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들게 했다.

7살 반 아이 중에서 6명이 대회를 출전하기 위해 연습 중이라고 한다. 나의 방문으로 미리 한복을 이쁘게 입고, 머리도 다시 빗어 정갈한 모습으로 호기심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하고 공수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모습에 “어머니 이빠라~~” 그 만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다



소곳이 앉아 생활차를 행하는 모습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원래 어린이집 수리로 다른 곳에서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기물들이 보관 중인 컨테이너에서 다 찾지를 못해 다구들 준비가 조금은 미흡한 상태에서 연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회 출전용 영상 촬영 전까지 되도록 다구들을 제대로 갖추어 미흡한 점 보완하여 대회 규정대로 촬영하기로 얘기를 나누었다. 배운지 이제 일주일 되었다는데 어쩔 그리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두 다례 천재들이다. 유치부 아이들이 행다를 행하는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 무념 무상하



게 하여 힐링이 된다.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심신이 느슨해진 일상의 실수가 있어 반성의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미처 한복을 챙겨가지 못해 예쁘게 한복을 갖춰 입고 있는 아이들 앞에서 민망함을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직도 세세하게 생각이 미치지 못함을 자책하며 어린 새싹들 앞에서 마음을 새로이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 꽃처럼 어여쁜 아이들의 소질을 일깨워주시는 변명선 이사님과 이순진 선생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

차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 고영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그 일주일과 한 달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쳇바퀴와 같은 삶을 가지고 있다. 잠깐의 일탈을 하여 마음을 달래지만 다시 그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언젠가 마음은 지치고 피로함을 느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그것은 바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다.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것, 그리고 힘든 일들을 정리하는 것, 사실 이것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특징하게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그러한 기회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다도는 의도치 않게 나에게 찾아왔다. 불안정하고 우울함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던 20살에 나에게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고, 기회를 주신 박남숙 사범님에게는 이야기에 앞서 감사를 표하고 싶다. 다도를 처음 배웠던 날에는 차를 마셨다. 다양한 차를 접해볼 수 있었다. 인성예절 수업을 들으며 마셨던 차의 맛을 통해 차에는 음식처럼 차를 우리는 사람마다 맛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다는 것

을 느꼈다. 카페에서 티백으로 만들어진 것만 마셔보다가 정성을 들인 차를 마셔보았는데, 찻잔 안에 담긴 찻물은 단순히 음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사람의 심성까지 담기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평소 담소를 나누고 다과를 먹는 것 또한 소소한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주었다.

그것으로 나는 다도의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조금 더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업을 처음 들어 공부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다. 한쪽 다리를 꿇는 자세는 한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로 저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차영민 부회장님의 “대회에서 손 떨면 예뻐서 점수 더 주지”라는 유머에 마음을 잡을 수 있었다. 또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잡아주어 배울 수 있었다. 그 후 계속 집중하려는 마음을 가지다 보니 내면의 눈으로 다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어느 순간 나에게 집중하게 되었다.

내 귓가에 들리는 고요한 물줄기는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까지 집중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하얀 찻그릇에 담긴 녹색 찻물이 화려하



차예절

게 느껴졌다. 그때 나는 진심을 전하는 다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배님들과 함께하며 많이 마시고, 보고, 들으며 서두르지 않고 차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배워야겠다. ☺



인성교육

서울제2지부 중랑 교육장 오픈,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김민아

마당 한 모퉁이에 만개할 날을 기다리며 봉긋 부푼 가슴을 안고 서 있는 목련 나무와 함께 봄소식을 애타게 기다렸던 날들이 지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밤 지부 개강식에 참석할 생각에 이리저리 뒤척이다 잠을 잤는데 어느새 햇살이 밝게 비추어서 눈을 뜨니 아침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지라 평일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협회 부회장님이 배려해 주신 덕분에 매주 직장인반이 여의도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었던지라 무척 중랑지부도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지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들려오는 지부 선생님들 소리~ 지부에 문이 열리는 순간, 코로나로 인해서 자주 뵈지 못했던 부회장님, 지부장님 그리고 지부 선생님들을 반갑게 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밝은 미소와 개강식을 시작했습니다. 모처럼 뵈는 반가운 얼굴들, 그리고 늦었지만, 보수교육 수료증과 함께 특별히 준비해오신 홍차 등을 개봉하면서 개강식이 열렸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해온 차와 다식들을 맛보며 지부의 한 가지 더 기쁜 소식을 환한 미소와 함께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부 자랑이며 기다렸던 책이 출간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숨을 죽이며 책장을 넘기어 읽어 보니, '예' 하면 어렵고 추상적이며 가까이하기에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인성아! 함께 놀자! 라는 책 제목으로 친근감 있고 형이 동생에게 들려주는 듯한 8덕목 느낌이었습니다. 항상 아이들하고 함께 하며 예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쉽게 다가가지 못했던 일들을 또래 입장에서 재미있고 솔직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하루가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지부장님께서 대학원 입학으로 학업에 충실해야 해서 협회 이사로 남게 되었다는 소식도 함께 하면서 마스크가 생활화되어가면서 모든 것들이 슬로우 해가는 생활 속에서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슬로우 하지 않고 마스크 벗는 날을 기다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제2지부 회원님들의 발전해 가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내가 차를 불러 주었을 때 차가 내게로 왔다

글_서울제2지부 전문사범 권영주



차를 마신다는 행위는 특별하다.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운동을 한 뒤에도, 내 주장을 부르짖는 말 다툼 뒤에도, 분을 식이지 못해 뜨거운 컵길을 내 뿜은 뒤에도 차는 항상 특별했다. 예쁜 잔에는 막 끓인 따뜻한 물이 하얀 김을 내뿜고 마른 이파리는 물속에서 헤엄쳤다. 티백티든, 잎차든 물 속에서 잉크물이 퍼지는 장면과 비슷하게 찻물 색이 기지개를 폈다. 물과 함께 우러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차분해지는 기분처럼, 찻물도 서서히 흐려진다. 날뛰던 내 마음이 얹 전해지는 것을 느낀 찻잎은 그제서야 자신의 색을 숨긴다.

차 봉투를 열어 안을 들여 봤다. 향긋한 내음을 풍기며, 파리를 틀고 웅크린 찻잎은 똑같이 나를 올려다 본다. 이렇게 딱딱한 것이, 이렇게 시커먼 것이, 이렇게 돌돌 말린 부스러기 같은 게, 물과 만나면 쭈그렸던 몸을 활짝 펴고 물 속에서 편안히 몸을 누인다. 언젠가 나의 차 선배이신 박광옥 부 회장께서 차를 우리고 난 뒤의 찻잎을 손바닥에 얹어주셨다. 이파리 모양을 살펴보는 과정이 좋은 차 공부가 된다고 알려주시면서, 조심스럽게 여린 이파리를 활짝 펴니 그때서야 찻잎의 얼굴이 드러났다. 나는 차를 그렇게 마시면서, 차를 이렇게나 많이 마시면서도 요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도 궁금하지 않았다. 그 날이 돼서야 차가 나에게 끊임없이 말을 건네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를 봐.] 나는 '그 날이 돼서야' 차와 얼굴을 마주했다.

보성의 하늘과 차밭은 푸르렀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은 그대로 정수리 위에 떨어졌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썼지만 뒷목덜미가 강한 열기에 익어가는 기분이었다. 둥근 원기둥 모양으로 길쭉하게 열을 맞춰 나를 환영하는 차 밭, 차 무리는 바람에

몸을 흔들었다. 차는 찻잎을 따는 이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운명이다. 이파리가 너무 뽀뽀해도, 너무 윤기가 흘러도 안됐다. 부드럽고 얇으며 연두색과 초록색 중간 어디쯤 색을 띄는, 이제 막 차가 되기 위해 꿈을 그렸을 어린 잎을 찾아야 했다. 차와 나는 둘 다 '차가 되겠다/차로 만들겠다'는 확신이 필요했다. 1인분의 몫을 하기 위해 사회에 나와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시점에는 항상 좋은 스승과 선배가 필요한 법이다. 잎은, 오래 함께 풍성한 잎을 부대꼈을 가족을 떠난다. 나는 제대로 된 차를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뒤라야 나의 빨간 광주리 안에 찻잎의 몸을 누여준다.

소색 광목 천 위에 한데 모인 찻잎 무리는 다시 한번 엄격한 선별과정을 거쳐야 했다. 차밭을 떠나 야심에 차 있던 이파리들 상당수가 바닥으로 버려졌다. 태어난 곳을 떠났지만 꿈을 이루지 못한 슬픈 잎은 차가운 바닥에서 마지막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선택 받은 어린잎이 뜨거운 술에 몸을 던져 뒤어지는 동안,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뜨거운 가마솥은 또 다른 난관이다. 타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면장갑을 낀 손들이 타원을 그리며 빨리, 더 재빨리 이파리를 훑고 지나간다. 모아주고, 누르고, 모아주고, 뿌리고. 두 손으로 녹색 무리를 깊이 압박한 뒤에는 가을에 낙엽을 흩뿌리듯 던져준다. 호흡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멈추고, 또다시 내쉬는 과정은 마치 앞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장면과도 같다. 정신 없이 더운 열기를 흠뻑 받아들이는 이파리를 꺼내 광목천 위에 쏟아 부어 놓으면, '후우.'하며 한시름 놓는다. 그 녀석들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두 손으로 동그랗게 말아 돌리며 꾸욱 꾸욱 마사지해주면 잎들은 알

아서 몸을 동그랗게 말기 시작한다. 두세 번 뜨거움과 흠뻑림과, 짓눌러 동글리는 과정을 반복하면 슬슬 모양이 잡혀간다. 이렇게 잎은, '차'가 되는 고통을 홀연히 받아들이고 바삭 말라 때를 기다리다가, 이윽고 따뜻한 물과 함께 생의 목표를 이룬다.

차를 마신다는 행위는 남다르다. 고향이 같은 찻잎을 모아놓은 티, 서로 다른 곳에서 여행을 떠온 찻잎을 섞은 티, 달콤하고 향기로운 열매와 짝지은 티, 그 무엇도 남다르다. 내 앞에 놓인 찻잔에 담길 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글 때까지 오랜 여행을 떠나왔을 짙은 색 찻잎을 가만히 바라본다. 해가 반짝이는 날, 비가 오는 날, 흐린 날, 안개 낀 날, 그리고 다시 뜨겁게 내리쬐는 해를 만났을, 찻잎의 어린 시절을 상상해 본다. 쪼르륵, 물이 담기고 푸르른 이파리가 편안하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때면 찻잔에도 푸르름이 바다처럼 가득, 담긴다. 차를 마시는 내 입으로, 내 몸 속으로, 그리고 내 마음 속 가득 찻잎이 경험했던 아름다움이 벽차게 담긴다. 바야흐로 차와 내가 함께 무성하고 울창해지는 순간이다. ☕



차(茶)가 주는 평온함

글_서울제1지부 지도사범 허정윤

초등학교, 대학교, 성인이 되어서도 차(茶)를 배울 기회는 있었으나,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차(茶) 보다는 서양의 커피와 밀크티를 더욱 즐겨 마셨습니다.

그러던 지난 2020년 휴직과 함께 맞게 된 코로나 19 상황으로 일절 외출 없이 지내던 시기, 오랜 기간 음다(飲茶) 모임에 다니시던 어머니의 권유로 차(茶) 수업을 알아보게 되었고 그렇게 코로나 우울증으로 무기력한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준 차(茶) 수업을 운명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 끓이기, 탕관과 찻잔 데우기, 찻잎 우리기, 차의 색과 소리, 향, 맛을 오감으로 느끼며 특히, 차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익히면서 차(茶)가 주는 따뜻한 위안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매력에 이끌려 차(茶) 생활이 이어졌고, 서울로 이직하게 되면서 현재 한국차문화협회의 서울제1지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 때 반갑게 맞아 주시고 차(茶)에 대해 조

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주시려는 열정적인 선생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생생합니다.

서지민 지도사범의 마카롱 수업에 참여하면서 평소 밖에서만 먹던 마카롱을 집에서도 생각보다 쉽게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친절하고 재미있는 설명과 세심하게 준비 해주신 재료들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몰랐던 하루였습니다.

또 전통 떡과 대추, 과일 등을 활용한 다식(茶食)만 생각하고 있던 저에게 이번 마카롱 디저트 수업은 다식(茶食)에 관한 생각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차(茶) 수업 이외에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하고 운영해주시는 많은 전문 사범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한국차문화협회에서 다채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나눌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3년 만에 맛보는 제다실습,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다

글_대구경북제1지부 전문사범 장명희

대구경북제1지부는 지난 5월 9일 하동으로 제다실습을 다녀왔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지난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무기력했었는데, 오랜만에 제다실습을 한다고 하여 만사 제쳐놓고 하동에 있는 다원으로 달려갔다. 모처럼 외출하기에 회원들 또한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다.

동기들과 선후배가 서로 반갑다고 인사를 하느라 시끌벅적하다. 아침 일찍 출발한 관계로 오전 10시에 하동 차밭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지부장은 세심하게 채엽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주의 사항을 듣고 바로 채엽을 시작했다. 채엽을 한 다음 점심을 먹고 찻잎을 덩이면서 차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앞으로 차 한잔을 마시는 데 있어 허투루 마시지 않도록 다짐했다. 이번 제다실습은 사범 위주로 가서 그런지 차 만드는 솜씨가 수준급이다. 차가

건조되는 동안 우리는 화개장터를 한 바퀴 돌며 자유시간을 가졌다. 화개장터 위쪽으로는 드넓게 펼쳐진 차밭과 아름다운 풍광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여유롭게 차 한잔하며 그 유명한 화개장터를 구석구석 구경하며 쇼핑도 즐겼다. 화개장터를 구경한 다음 차밭으로 돌아가 건조된 차를 잘 마무리하고, 버스에 올랐다.

차와 함께 하는 시간은 하루가 짧은 것 같다. 우리가 직접 만든 차를 가지고 가서 우려 마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뿌듯했다.

행복한 하루였다. ☺



제다 실습을 통해 행복을 되찾다

글_인천지부 지도사범 교육생 신생자

온 천지가 푸르름으로 가득했다. 싱그러움 그 자체인 자연 속으로 일상을 떠난 휴식 같은 수업을 한다니 더욱 설레기 그지없고 차 공부를 하면서 더욱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진 제다에 관한 수업이라 더욱 기대감에 들떠 있었던 것 같다.

인천에서 다섯 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보성은 그야말로 녹음으로 우거진 천혜 자연을 자랑하는 순수하고 맑은 고장이었다. 온 마음에 맑게 씻겨지는 듯한 청량한 기운이 더한 상쾌함을 온몸에 가득 느끼게 한다.

차밭의 연한 빛깔의 푸른 물결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고 유순하게 만드는 것 같았다.

뽕쪽뽕쪽 올라온 1창 2기의 찻잎을 따는데, 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은 잎을 따는 나의 마음까지도 부드럽게 전해져 자연스레 유순하게 하는 듯했다.

해맑고 고운 미소로 땀 찻잎을 고열로 달궈진 커다란 가마솥에 덖는 작업은 그야말로 세심하면서

도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오로지 집중한 상태에서 빠르게 뒤편에 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빠르게 덖어 차향이 달아나기 전 유념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힘의 조절과 부드럽게 한 방향으로 비비는 과정이 좋은 차를 탄생시키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제다 과정은 어쩌면 우리네 삶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되었다. 이번 제다실습에서 지부장과 선배 사범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화기애애하며 잔잔한 감동이 되었다.

늘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시는 총무, 그리고 사범들의 드러내지 않는 수고로움이 더욱 감사함으로 내내 남았다. 차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이 좋게 조화를 이루는 것과 서로가 존경한다는 것, 마음속이 맑다는 것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차의 정신으로 차 공부에 더욱더 정진하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한국차문화협회 모든 분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 몸과 맘이 더욱 푸르러지고 평온해지길 기원해 봅니다. ☺



해는 지는데...

글_전남지부 지도사범 선수원



남편과 나는 한 줌의 햇살도 귀한 겨울에 햇별이 사그라지는 늦은 오후에야 산책길에 나선다. 남편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석양을 보고 싶어서다. 언젠가부터 저물어가는 해에 마음을 뺏기곤 한다. 아마도 나이 탓이려니 싶다. 슬프게도 석양을 바라보는 나의 감정에 노을빛이 스며든다. 우리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논 샛길을 지나 중도방죽으로 가는 코스를 정해 놓고 있다. 바닷물을 막아 조성한 드넓은 간척지 논은 사계절 내내 바라보는 시선만큼 풍요로움을 안겨준다. 남편은 대하소설 「토지」의 대지주 윤 씨 부인처럼 이 논들을 다 사들여 별교의 대지주 선 씨 부인을 만 들어주겠노라며 한 번씩 호기를 부린다. 나는 남편의 허세에도 괜스레 기분이 좋아진다. 남편의 허세와 나의 기분 좋은 포만감은 논 가운데에 있을 때만 생기는 것들이다.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갑자기 검은 무리가 휙 하니 머리 위를 지나간다. 꽤 많은 수의 새 떼가 밀동만이 남아있는 빈 들녘의 하늘을 거침없이 날고 있다. 그들의 움직임 따라 깔깔한 겨울바람도 뽕뽕 함께 내달린다. 바람 소리에 섞인 새소리들이 적막한 공간에 생명

의 힘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새들이 보여주는 힘찬 군무를 보며 해가 점점 저무는 것도 잊고 있었다.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백로가 우아하게 무리를 지어 다니는 평화로운 들녘이었다. 지금은 검은 새 떼가 고요한 공간을 생동감 넘치게 흔들어놓는 겨울 한나절이다. 변화무쌍한 자연은 지루함을 느낄 겨를을 주지 않는다. 새 떼가 맘껏 놀다가는 허허로운 겨울 들녘은 외롭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퍼뜩 든다.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쓸쓸한 것이다. 새벽이슬이 촉촉이 내려앉고, 떠오르는 태양은 얼어붙은 대지를 온종일 따사롭게 감싸주지 않는가. 때로는 다채로운 형상의 구름이, 땀가루 날리듯 뿌려주는 눈발이, 빗물, 달빛이, 별빛이 외롭지 않게 다독여주며 그들만의 조화를 이루며 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죽살이치며 겨울나기를 하는 못 생명은 자연의 보살핌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며 봄을 준비하리라. 돌아올 봄 절기에 이 빈 논들에 물이 채워지고 푸른 새 생명이 자라날 생각을 하니 괜히 뿌듯하다. 맑고 차가운 공기를 맘껏 호흡하며 걸음을 재촉한다.

중도방죽에 올라선다. 별교 산하가 한눈에 들어온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키니 가슴이 시리도록 뻥 뚫린다. 느슨한 곡선을 그리는 20여 리의 길을 따라 나의 시선이 쪽쪽 뻗어나간다. 우리는 순천만 동쪽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갑자기 오줌이 마려운 사람처럼 발걸음이 빨라진다. 팔을 휘저으며 앞만 보고 걷다 보니 옆이 허전하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뒤쳐져서 갯벌을 내려다보며 목을 쭉 빼고 있다. 짱뚱어, 칠게, 농게의 뒤를 쫓느라 정신이 팔려있다. 빨리 오라 소리쳐 불러놓고 나는 빠른 걸음으로 방죽 끝자락을 향한다. 서서히 허공의 색조가 달라지고 있다. 열은 회색빛 어둠이 내려앉는다. 곧 있으면 모습을 드러낼 장엄한 석양을 영접할 시간이다. 걸음이 급해진다. 방죽 끝에 다다르자마자 심호흡을 하고 휙 하니 돌아섰다. 서쪽을 감싸듯 제석산과 징광산 줄기가 합쳐지는 그 위로 붉디붉은 저녁 해가 당당하게 그 위용을 보여주며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가슴과 마음에 붉은 기운이 담긴다. 하루해가 넘어가기 전 마지막까지 온 힘을 모으고 모은 커다란 불덩어리다. 새벽이 오기 바로 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해지기 전 강렬한 색채로 타오르는 그 의미가 내게로 전해온다. 석양을 바라보며 걷는 내 눈도 붉은색이 그득할 것 같다. 어느새 석양은 산 아래로 떨어지고, 그 자리에 붉은색과 주황색 물감을 섞어 칠해 놓은 것처럼 저녁노을은 색채의 향연을 벌이고 있다. 형언하기 어려운 감동이 밀려온다. 해가 지고 삼십여 분이 가장 아름답다고들 한다. 초승달과 별 하나 떠 있는 진회색의 하늘과 도도한 바닷물과 갯벌에 저녁노을이 물들고 있다. 이때 가로등이 켜지고 가로등마다 달린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추억의 올드 팝송이 열은 어둠과 저녁노을에 어우러져 감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다. 아름답고 행복한 저녁이다. 난 돌아가야 할 집을 잊고 있었다. 조수미의 '나가거든'이 애잔하게 나의 슬픈 감성을 자극한다. 가로등 아래 서서 노래에 집중하는데 잠시 잊고 있었던 남편이 버럭 큰소리로 "어두워지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 갈 생각도 안 하고, 도대체가 정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남편은 정신 빠져있는 나를 혼내놓고서 혼자 화난 걸음을 하고 있다. 감정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저 남자는 젊어 한때 자신의 감정을 주체못한 적도 있었다. 대학 다닐 때 군대에 가 있던 그는 붓글씨로 쓴 편지를 늘 학교로 보내왔었다. 편지글 속에는 감정을 주체못하고 써 내려간 연시도 있었다. 붓글씨 편지는 친구들 사이에서 나름 유명했다. 친하게 몰려다니던 친구들은 킁킁대며 돌려가며 읽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나 아닌 다른 여자들에게도 붓글씨로 넘치는 감정을 퍼 날랐다고 한다. 나는 편지를 친구들과 공유해서 조금은 미안했던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됐다. 샘샘이었다. 그런 그가 늙어가고 있다. 나이보다 한참이나 젊어 보여 나를 연상의 여자로 만드는 그가 요즘은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있다. 나도 여기저기 몸에 탈이 생긴다. 그와 나는 어쩔 수 없이 저녁노을을 유정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노년의 길목에 들어서고 있다. 하지만 해가 지고, 그 이후 얼마간 시간이 가장 아름답듯 함께 의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우리의 노년이다. 앞장서 가면서 빨리 오라고 소리치며 괜한 성질을 부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우리의 귀한 노년의 시간을 소망해본다. ❶

연꽃차

글·사진_아산지부장 김태임

새벽에 깨어나 살포시 눈을 뜨면
하늘이 잘 있는지
앞산의 바위는 잘 견디는지
다가오는 바람에 귀 기울인다
수십 년 가슴에 품은 꿈을 향기로 가득 담았다가
나를 보듬은 온기에 연향(蓮香)으로 너를 만나다.



차를 나누는 사람들

지부사랑방 | 강원지부 · 경남지부 · 광주지부 · 교토지부
(가나다 순) 대구경북제1지부 · 서울제1지부
서울제2지부 · 순천지부 · 인천지부
전남지부 · 충북지부

(사)한국차문화협회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집합금지 규정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의 사진 중 인원 초과 시의 경우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촬영된 것임을 밝힙니다. <편집자 주>

강원지부

보성 보림제다에서 맛있는 햇차를 만들다

제다실습을 통해 차의 소중함 깨달아



지부장 김미숙

강원지부는 지난 5월 14일 토요일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1시 보성으로 차 만들기 체험을 떠났다. 강원지부는 늘 차 만들기 체험을 떠날 때마다 장거리다 보니 1박 2일이나 무박으로 출발을 하곤 한다. 회원들의 편리를 위해 두세 곳을 거쳐 아침 8시경 보성에 도착하니 화창한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회천 울포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맑은 공기와 함께 아침 조식을 먹고 보림제다에 오전 9시에 도착했다.

보림제다 서희주 사장이 반가이 반겨주시며, 때아닌 5월 첫 주에 서리가 갑자기 내려 차밭이 불긋불긋 동해를 입어 아직 제다장 자체도 차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라고 하면서도 차 따기 체험(採茶)을 30분 정도라도 해볼 기회를 주셔서 찻잎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딴 찻잎과 함께 미리 준비해 둔 찻잎으로 실습에 임했다.

처음 딫음의 온도는 찻잎이 어려 250℃를 시작으로 7분 정도 딫어, 채반에 꺼내 열기를 식힌 후 유념(비비기) 과정을 한 후 다시 두 번 딫음은 온도를 낮추어 200℃에서 약 5분, 딫은 후 일쇄를 20분 정도 한 후 3번 딫음 했다, 찻잎이 어리고 작년

보다 작은 관계로 비비기(유념)는 두 번, 일쇄 건조 후 3번 딫기를 하였다, 작년 실습과 또 다른 느낌이었다. 신비롭기도 하고 술에 처음 찻잎을 넣으니 딱딱따 딱딱 볶는 소리로 신기하기도 하고 푹푹한 풀향기에 취해 코가 별름별름 침샘까지 올라오게 했다. 딫는 과정은 좀 힘들기도 했지만 맛난 차를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메모하며, 만든 차를 시음하는 순간 감동이었다.

제다를 마치고 돌아온 시간은 밤 10시 30분. 피곤하고 힘들기는 하였지만, 최상의 차를 맛볼 수 있어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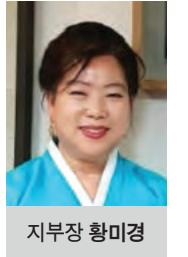
글_지도사범 교육생 권송은



경남지부

63기 교육사범 명림지회에서 종강식 가져

열심히 공부한 63기 모두 파이팅



지부장 황미경

황미경 경남지부장과 63기 교육사범들 경남지부 임원님들과 함께 의령 명림지회에서 종강식을 가졌다. 햇별은 쨍쨍. 땀방울은 송알송알 맺히고, 장맛비가 그친 후라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 짜증나게 하는데 경남지부 식구들은 해맑은 모습으로 숨쉴 맵시 마음씨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하 호호 여름 더위 따윈 싸악~ 물러나고 시원한 백련꽃차의 향기도 즐기고, 연잎밥 만들어 열공한 경남지부 교육사범들에게 제공했다.

백련꽃이 피고 잎이 진초록으로 물들 때, 떡과 과일 감주 갖가지 맛난 음식을 준비해 와 종강식을 잘 마쳤다. 63기 교육사범들 파이팅!

글_의령 명림지회장 조희옥



경남지부 한밭제다에서 제다 실습하다

체험을 통해 차의 소중함을 깨닫다

오월 첫 주, 경남지부 제다실습을 하기 위해 하동 한밭제다에서 모였다. 모두 이른 시간 나선 덕분에 딱 제시간에 제다실습을 시작했다. 지부장님 인사 말씀과 제다원 사범님 일정과 제다 기본 설명을 듣고 차밭으로 이동했다. 넓은 차밭이 싱그럽게 펼쳐져 기분이 상쾌했다. 사범반 선생님들은 양증맞은 바구니 하나씩 옆에 끼고 소풍 나온 아이처럼 햇차 잎을 따며 즐거워했다.

채엽하고, 덪고, 비비고, 오후 마무리까지 좋은 환경에서 함께 체험하니 즐겁고 행복했다. 오랜만에 회원들과 사범반 선생님들과 정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면서 더더욱 서로가 돈독한 사이가 되었다. 차를 하므로 이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어 참으로 좋았다. 제다실습 과정을 통해 제다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한밭제다 이덕주 선생님께서 차잎을 따서 어떻게 차가 만들어지는지 자세하



게 설명해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부 교육장에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실습으로 우리가 마시고 즐기는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은 더없이 소중했다. 차 한 잔을 귀하게 마시고 나누고 함께 해야 함을 깨닫는 날이었다.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제다실습 내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에서 역시 경남지부 차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글_전문사범 정재윤

사범반 선비다례 수업 진행

규방다례 강정자 이수자 지도

경남지부에서는 5월 24일 사범반 선비다례 수업이 있었다. 규방다례 이수자인 강정자 고문님의 지도로 수업이 진행되었다. 제65기 인성지도사범 수업은

인성예절수업이기 때문에 조금은 낯설어 질 것이지만, 앞으로 일취월장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처음 수업을 들을 사범반 회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광 주 지 부

2022년 상반기 교육 개강식 가져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봄, 어느 날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한 봄, 어느 날. 따뜻한 남녘에서 한국차문화를 배우겠다고 다짐한 신입생들이 아롱다롱 모였다.

코로나19로 얼굴 대부분을 마스크로 가렸지만, 호기심과 설렘으로 가득한 눈망울은 홍매화 꽃망울과 닮아 보였다.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한국차문화협회에서만 하는 의례로 '선고 차인에 대한 묵념' 후 한국차문화협회 광주지부 박혜란 지부장님의 환영사와 2021년 하반기 사업 경과보고가 있었다.

광주지부의 꽃 박혜란 지부장께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이수자”로 선정되었으며, 노영숙 전문사범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제61기 지도사범 자격증 수여식과 졸업식 때 박설미 지도사범이 공로상, 김은영 지도사범이 봉사상을 받았다는 경과보고 후 광주지부장의 “차의 기본정신”에 대한 첫 강의로 개강하였다.

광주지부에서는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한국의 차문화와 우리나라의 대표적 다서 『동다송』에 대한 이론 강의와 인성예절교육으로 규방다례와 선비다례, 차 음식과 제다실습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남녀노소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광주지부는 코로나로 지쳐있는 현대인에게 차를 통한 진정한 심표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글_전문사범 교육생 주미경



녹차의 수도 보성군에서 제다와 차문화 체험

광주지부 2022년 상반기 제다실습

‘차나무를 정성으로 키우고, 보배 같은 차밭을 만들어라.’라는 뜻의 보림제다(寶林製茶)를 지난 5월 15일 광주지부 교육생 및 선배들이 참여한 가운데 차 문화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녹차의 수도인 보성군에 있는 보림제다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광활한 대지와 차나무가 아름다워 펼쳐진 다원에서 ‘채다는 1창 2기를 따는 겁니다’라는 설명과 함께 갓 입문한 학생들은 그저 신기해하고, 선배님들은 호뭇하게 알려주었다. 이어서 300℃로 달구어진 솥에서 차를 덥고, 말리고, 덥고 말리고를 반복하면서 차 한 잔을 위해 얼마만큼의 수고로움이 필요한지 알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어서 차 전문교육 센터인 다락원(茶樂園)에서 ‘한국차산업의 현대화와 확산 발전방안’을 주제로 차생산과 가공·유통시스템의 현실과 차산업 발

전을 위한 산업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신기호 박사님께서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다.

이어서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3호로 지정된 초암정원을 방문하였는데, 이곳은 한국차문화협회 이영자 선배의 자택으로 69,000㎡의 넓은 땅에 철마다 꽃피는 나무 200여 종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오늘 제다한 녹차로 다담을 나누었는데 선배님께서는 온갖 다식과 유희로 후배들을 즐겁게 해주셨고, 함께 방문한 어떤 선배는 답례로 무병장수하시라고 “六堡茶”를 드리는 등 차로 맺어진 인연으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진 자리였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김지영



교 토 지 부

오사카 코리아국제학원에서 다례 교육

재일교포와 일본인 대상으로 행다 강좌 열어

교토지부는 지난 3월 16일 재일교포 자녀와 일본인이 다니는 오사카에 있는 코리아국제학원에서 한국 전통문화 강좌를 가졌다.

교토지부 회원들이 수강생들에게 한국의 다례에 관해 설명하여, 현지 재일교포 자녀와 일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특히 재일교포 자녀들은 한국의 차문화를 배운다고 자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토지부는 일본인과 재일교포가 화기에애하게 한국차문화를 가르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쳤다. 배우는 학생들 또한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교토지부 회원들의 말에 집중했다. 이곳 코리아국제학원에서는 한국어교

육을 기본으로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비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곳이다. 시간이 될 때마다 한국의 차문화를 가르치도록 교토지부는 노력할 것이다. 교토지부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지길 기원해 본다.



대 구 경 복 제 1 지 부

화요 연구반 장연사에서 화전놀이

봄 향기 가득한 다식으로 행복한 하루

화요 연구반 회원들과 우리 사범이신 월제 스님이 있는 장연사에 화전놀이를 갔다. 온 산에 진달래가 만발했다. 회원들은 두 명씩 짝을 지어 산에 진달래꽃을 따고 쭉을 깨며,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며 꽃바구니를 채웠다. 회원들은 과일과 점심을 먹으며 소풍을 온 것 같으며 즐거워했다. 오랜만에 바깥공기를 맡으니 더욱 그럴 것이다. 화전을 완성하자 장연사에 손님들이 왔다. 부친 화전을 들고 손님께 맛보였다. 봄 향기가 나는 꽃 떡에 벌꿀을 살짝 뿌려 드리니 손님들의 칭찬



이 자자하다. 회원들은 봄 떡다식과 스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차를 즐기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지부 선배 차인들 단합대회 가져

선·후배의 만남을 통해 전통을 이어가다

우리 지부에는 오랫동안 차문화의 역사를 지켜온 연배가 높으신 선배 사범반 1사범회가 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기 위하여 만났다. 선배 없는 후배가 없다고 모두 만나면 후배들 양성에 마음을

쓰시고 협회 연회비 문제 등을 회의했다.
어느 단체가 만나면 이렇게 하하 호호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생각해 보며 흐뭇한 미소가 나온다. 예절을 겸비한 많은 세월 동안 이웃을 배려하는 다저진 차인인 것 같다.
지부장으로서 아주 고맙다. 언제까지나 건강을 잘 지키셔서 지부와 후배들의 힘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봉숙 회장님께서 맛있는 점심을 제공해 주시고, 양영희 총무님께서 과일과 다식 떡을 준비하시고 지부에서 차를 내어 용기종기 차담을 나눴다. 적적했던 지부에 웃음소리가 창밖의 봄꽃과 어울려 환하게 메아리쳤다.



사범 월례회 개최

신임회장 및 총무 선출과 자격증 배포



대구경북제1지부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2사범회 월례회를 가졌다. 회원들은 오랜만에 만나 반갑게 이야기꽃을 피웠다. 신임 회장(장명희), 총무(이남정)가 인사하고 보수교육 자격증을 나눠주고, 2지부 사범님을 초대해서 함께하며 보수교육 자격증을 전달했다. 주변에서 코로나19 오미

크론 확진자가 급증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때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았다. 다음 달 차발 갈 때 만나기를 기약하고, 마스크 쓰고 짧은 시간 동안 알찬 시간을 보내고 헤어졌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모두 건강하시길 기대한다.

서울제1지부

배움의 시작 개강식

우리 차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다

차 마시는 걸 평소 좋아하기는 했지만 배워보겠다는 생각까지는 못 했었다. 우연한 기회에 지인의 추천을 받아 한국차문화협회를 알게 되었다, 상담을 먼저 해보기로 하고 서울제1지부를 방문한 날이 마침 개강식 날이었다. 개강식 준비로 많은 분이 분주하고, 바쁘셨지만 첫 방문부터 따뜻하게 맞아 주시며 차를 내주신 지부장님과 선배님들은 오랫동안 뵈 것처럼 편안했고, 한국차문화협회의 교육 내용, 교육 방식, 활동 등에 대해 상담 후 자연스럽게 입회 원서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작된 2022년 개강식에 나는 신입회원으로 참석했으며,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너무나도 친숙하게 서울제1지부의 일원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차를 접하면서 만난 한국 차의 맛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갔다. 그리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과 우리 차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에 한국차문화협회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2년의 지도사범 교육과정 안에서 차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규방다례, 생활다례, 선비다례의 행다를 익히고 있다. 오랜 역사와 전통, 선배님들이 계신 이곳에서 차근차근 차의 길을 찾아가는데 혼자 아닌 지부장님, 이사님,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익히고, 차를 대하는 태도까지 하나하나 배우며 함께 하는 길이 나에게 큰 힘과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는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김미영



하동으로 제다실습을 다녀오다

녹차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정성이 필요했다

5월 7일 드디어 생애 첫 제다실습 날!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하동의 한밭제다 녹차밭으로 출발했다. 하동에 들어서면서 온통 초록색의 산과 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한밭제다에 도착해 녹차밭에 들어가 파릇파릇 돌아 있는 찻잎들을 손으로 따보고, 직접 뜨거운 솥에서 찻잎을 덫으며 살청 과정을 실습하는데 장갑을 두 개나 끼었는데도 뜨거움이 느껴졌다.

살청 과정을 반복하면서 찻잎이 가벼워지는 것과 찻잎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매콤한 향이 점점 구수한 향으로 바뀌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살청 과정과 둥글둥글 동그랗게 공처럼 만드는 유념 과정을 반복하면서 녹차를 만들다 보니 허리와 목, 다리, 팔 등이 빠근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리고 기계 건조를 한 뒤 마지막으로 가향 단

계를 거친 후 우리가 만든 녹차를 마셔 볼 수 있었다. 연한 초록색의 녹차는 고수님들의 말씀으로는 이십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린 후 더 맛이 깊어진다고 하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녹차의 깊은 맛을 몰라서 그런지 평소에 마시던 약간 뽀얀맛의 녹차였다. 녹차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직접 만든 녹차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처음으로 만든 녹차라는 뿌듯함과 함께 다음에는 시간의 여유를 갖고 만들어보고 싶었다.

그래도 뒤돌아 생각해보면 일상을 벗어나 차를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글_지도사범 교육생 장미애



제25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다도대회 참가

서울제1지부 대상, 최우수상, 특별상 수상



지난 5월 5일 제25회 하동야생차문화축제 다도대회에 서울제1지부 신경희 회원의 제자들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는 협회뿐만 아니라 서울제1지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김범찬(중학생), 최우수상 박가빈(초등학교 3), 특별상 김태린(초등학교) 등이 수상했다. 이들

세 명은 한국차문화협회 생활다례 행다법으로 유치부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한 전체 인원에서 이룬 수상이기에 더욱 값진 상이다. 수상자들을 지도해준 서울제1지부 신경희 회원께 감사드리며, 큰 상을 수상하여 한국차문화협회의 위상을 알린 학생들에게도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어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 제 꿈이에요

어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나는 다례를 김미경 선생님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절하기와 다른 사람에 대한 예절과 배려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들으며 다례를 4년을 배웠다.

처음에는 다례가 무엇인지 잘 몰랐다. 그래서 배우는 때때로 딴생각하며 장난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나는 차예절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상도 받은 경험도 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은 차예절 대회가 취소되고 열리지 않았다. 다례 수업도 중단되어 아쉬움이 컸다. 그동안 배운 것이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2022년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고 하여 다시 다례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시 친구, 형, 누나들과 함께 예절과 인성을 익히며 다례를 연습했다.

지금은 꿈이 생겼다.

함크(함께 크는 아이들)에서 우리에게 다례를 가르치는 김미경 선생님처럼 사랑을 베푸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아이들에게 예절과 인성을 가르치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과 다른 어린이, 어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글_고산초등학교 6학년 나민혁

나는 또 이렇게 성장해 간다

다례에 입문하면서 생각도 깊어져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왔던 생활다례로 청소년차예절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중간고사가 있어서 많은 연습을 하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4월 30일이 예선인 줄 알고 아무 긴장 없이 연습하고 갔는데 본선 진출을 위한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웠다. 코로나19 이전 대회의 대면 심사를 할 때는 몇몇 분의 심사위원들 앞에서 시연했는데, 핸드폰으로 촬영된 영상 제출로 진행되는 이번 온라인 비대면대회를 위해 서울제1지부 지부장님과 이사님들 그리고 여러 가족의 시선을 받으며 촬영을 하니 더 긴장되고 떨렸다. 그리고 끊임 없이 한 번에 촬영을 마쳐야 함은 상당한 부담이었다. 그래서 잦은 실수들이 이어져 촬영을 마친 후에는 아쉬움이 생겼다. 그런 내가 짜증나고 충동적으로 대회 출전을 그만둘까 고민까지

했는데 다시 한 번의 기회인 재촬영에 마음을 가다듬고 임하였다. 촬영을 마친 후 생각해 보니 더욱더 다례가 왜 중요한지 알 것 같았다. 이렇게 또 나는 성장해 간다. 다례에 입문하고 생각이 깊어지는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까지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도움을 주신 김미경 선생님께 감사사를 드린다.

글_고척중학교 2학년 나설희



서울제2지부

벚꽃 찾자리 가져

부회장님과 회원 등 다수 참석

꽃 피는 봄은 사람의 마음과 발걸음을 가볍게 하고 이상한 생동감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힘들고 길었던 코로나가 이제는 삶의 일부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코로나19로 통제되었던 규제들이 하나둘 풀려가고 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박광옥 부회장과 회원들이 벚꽃 찾자리를 마련했다.



글_전문사범 류소영

행복한 건, 나눔과 봉사 때문이다

서울제2지부 류소영 우수자원봉사자 수상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시국이 이제는 물러가는 것 같다. “내가 행복한 건 봉사를 통해 수강료 없이 배운 인생 공부 덕분이다.” 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도 약 20년간 어려운 이웃을 챙겨주신 한 자원봉사자 어르신 말씀이다. 서울시 중랑구에서는 코로나 시국 및 여러 가지 봉사를 실천하고 있



는 한국차문화협회 서울제2지부 류소영 전문사범에게 우수자원봉사자 인증 메달을 전달했다. 류소영 전문사범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나누는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차문화협회를 널리 알리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인 천 지 부

다양한 형태의 차음식을 만들다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차음식 만들기

인천지부에서는 봄에만 맛볼 수 있는 화전놀이와 무리병(축하 편)으로 차 케이크와 커피를 이용한 케이크를 만들었다.

삼색(검정깨 가루, 녹차 가루, 송홧가루)를 사용했으며, 커피는(분말을 사용) 잣을 갈아서 섞어 잣의

향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회원들은 화전을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했다. 특히 이귀례 명예 이사장님의 호 '인설'을 로고로 만들어 차문화를 위해 평생을 바친 명예이사장님을 추억했다.



지부장 조영아

제16기 개강식 및 전임 지부장 이임식

지도사범 개강식과 이막동 전 지부장 이임식 거행

지난 3월 15일 인천지부는 이막동 전 지부장, 조영아 현 지부장, 남미선 사범회 총무, 김순옥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제16기 개강식과 지부장 이임식을 진행했다. 코로나 시국에 인천지부를 이끌어 주신 이막동 전 지부장의 노고에 대해 회원 모두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막동 전 지부장의 후임을 맡게 된 조영아 지부장은 “이막동 지부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에 인천지부가 다른 지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지부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인천지부 회원들은 그동안 인천지부를 이끌어 주신 이막동 전 지부장, 최성미 총무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앞으로 인천지부는 화합과 단결, 봉사하며 새롭게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막동 전 지부장이 이끌어 오신 것을 이어받아 더욱더 함께 하는 인천지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제 16기 개강식도 열렸다. 입학식에는 많은 선배 사범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첫 수업으로는 '차의 기본정신'에 관한 수업을 진행했다. 조영아 지부장은 한국 차문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르러 오늘날까지 차문화의 변천사와 오늘날 차 생활에 대해 열띤 강의를 해 주었다. 특히 인성예절교육에 대한 교육은 교육생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순 천 지 부

선암사 달마전 후원에서 찾자리 열어

국내 유일 다반사 볼 수 있는 곳

지난 4월 11일(월) 천년의 차맥을 이어온 순천 선암사 달마전 후원(後園) 뜰에서 방장 지암 스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찾자리를 마련하였다. 달마전은 선암사 칠전선원(七殿禪院)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다선일미를 한눈에 읽을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조왕신을 모시고 있는 차 부뚜막과 다각(茶角), 그리고 수각(水閣)이 있다. 달마전은 선승들이 선 수행에 정진하면서 차를 언제나 쉽게 음미할 수 있는 다구가 마련되어 있어 일상의 다반사를 고스란히 엿볼 수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곳이다. 특히, 달마전 후원에 있는 삼탕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각으로 약 12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선암사 야생차밭의 계곡에서



흘려 내려온 약수를 수각으로 연결한 삼탕수의眞水는 선암사의眞茶와 어우러져 禪味를 맞볼 수 있는 참으로 진귀한 곳이다. 이날 오전 순천지부 이강자 전문사범과 방수영 사범은 삼탕수의 물을 길어 정성껏 차를 끓여 선암사를 중창한 대각국사의 천의 부도전에 예를 갖추어 헌다 했다. 오후에는 흥매가 만발한 선암사 달마전 후원에서 아름다운 찾자리를 펼쳤다. 이날 참여한 50여 명의 스님들과 순천지부 회원들은 선암사의 갖 피어오른 움들의 연두빛과 함께 선다일미, 다선일미의 진수를 잠시나마 맞볼 수 있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역사와 전통의 차맥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선암사 달마전 후원에서의 찾자리를 가슴에 깊이 담아본다.



지부장 김영애

전남 유일의 차문화 교육장 마련

나주 반남중학교 대상 차문화 예절교육 실시

나주 반남중학교에서는 2022년 5월 한 달 동안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은의 마음을 담아 차문화 예절교육을 20시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께,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스승님께 공경의 마음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인성 차문화 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지도하고 있다. 특히 반남중학교는 학교 현관을 다실로 꾸며 학생들이 쉽게 차를 접할 수 있도록 차문화 교육장을 마련하여 차 한 잔을 통해 나눔과 소통, 배



움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고 있는 전남 유일의 멋진 교육 현장이다.

최원형, 최호영 선비다례 시연

어버이날 맞이하여 찾자리 마련

5월 8일(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순천시립 뿌리가 깊은 박물관 내 백경 선생 고택에서 순천향립 초등학교 최원형(4학년), 최호영(1학년) 어린이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자 작은 찾자리를 마



련하였다. 이 어린이들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선비다례를 시연하고 부모님께 차를 올리는 대견스러운 모습에 보는 이들은 흐뭇해하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전 남 지 부

청태전 마시기 운동 프로그램 참여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와 청태전보존회가 주관



지부장 서난경

전남지부는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와 청태전보존회가 주관하는 “재미있는 인성 차 놀이 청태전 마시기 운동”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해 장흥초등학교를 비롯한 장흥 관내 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총 9회에 걸쳐 실시될 이번 교육에는 전남지부 회원 6명이 참석해 다례 교육 현장 체험과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인성 8 덕목을 생활 행다에 적용한 교육과 장흥지역의 특산물인 청태전을 지역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차를 지역산업으로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한 위인숙 청태전보존회 총무(전남지부 전문사범)는 교육장들이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를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달려와 준 서난경 지부장을 비롯한 회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청태전 보존뿐만 아니라 전남지부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청태전보존회는 회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서난경 지부장을 강사로 위촉해 “6대 다류제다법과 청태전 제다법 비교 연구”, “청태전 생활 다례 법”,

“청태전 찻자리 및 안중근 의사 헌다례” 등을 교육하고 5월 18일 탐진강 일대에서 “청태전 찻자리 및 안중근 의사 헌다례” 실습, 시연회를 가져 군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글_지도사범 이경희



2022년도 1학기 개강식 가져

새로운 임원진 왕성한 활동 기대

전남지부는 지난 3월 19일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봄비의 축복을 받으며 2022년도 1학기 개강식을 가졌다. 다른 해에 비해 다소 적은 회원들이 등록했지만, 휴학생들이 새롭게 등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날 개강식에는 이정희 사범의 차 명상을 시작으로 서난경 지부장의 차 이야기가 이어졌다. 개강식이 끝



난 직후 2022년 임원진 선출이 있었는데 총무에 김나라, 재무에 조화영 회원이 수고해주기로 했다. 한편 서난경 지부장은 올해에도 비대면 수업을 병행하면서 회원들의 실력향상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전남지부는 올 상반기 교육 시간에 앞서 명상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글_사범 교육생 조화영

남부대 평생교육원에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과정 개설

차문화 보급에 앞장서다

지난 3월 15일 서난경 지부장은 남부대 평생교육원에서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3급 과정을 개설하고 회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 수업을 시작했다. 이번 개강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선착순 20명 마감을 지켜내 차문화 발전의 희망을 보였다. 매주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차에 대해 새롭게 접하는 3급 시험반과 졸업한 사범들의 고급반은



수업이 끝나면 연구실에 모여 차 고전, 학교 수업 안 짜기 등 현장 학습에 필요한 사안들을 공부를 통해 배워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수업에는 다식 만들기, 제다체험, 규방공예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차에 대해 친숙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글_지도사범 김숙

충 북 지 부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우리 차문화의 이론과 실습 지도

우리 지부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세계티클래스」 강좌를 매주 화요일 학기별 15주, 주간반(강사: 김영희 전문사범)과 야간반(강사: 김선경 전문사범)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차문화를 알리기 위해 우리 차문화사 등의 이론과 생활차 실습을 병행하여 지도함으로써 차를 쉽게 즐기도록 하고, 차가 주는 여유와 안정감을 체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금번 학기에는 이론, 실습 수업뿐만 아니라 우리 차와 관련된 문화 탐방과 교외체험학습으로 '문경 찻사발 축제'를 둘러보았다.

이를 통하여 찻사발의 역사와 제작 과정 등을 체험함으로써 차생활에 꼭 필요한 다구의 종류를 이

해하고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였으며, 우리 차문화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활동을 병행하여 참여적인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부장 박숙희

짙은 녹음 청아한 하늘과 함께한 제다실습

충북지부 전문사범과 서울제2지부 합동 실습

코로나19로 지루하고 힘들어 하는 시기지만 점차 좋아지길 바라는 심정으로 충북지부 전문사범과정 대학원팀은 5월 5일 어린이날 전남 보성의 청우다원에서 당일 일정으로 제다실습을 다녀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천안박물관에서 7시에 서울제2지부를 만나서 출발하는 일정이었다. 날씨는 푸르른 녹음이 짙고 하늘도 그야말로 청아함 그 자체, 하늘 바다에 풍덩 빠지듯 설레임을 안고 4시간을 달려 전남 보성 청우다원에 도착한 후 녹차 보리굴비 정식 한상 차림으로 감동과 함께 점심을 맛있게 먹고 제다실습이 다음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찻잎을 뜬다. (1창 1기나 1창 2기의 잎을 뜬다.)
2. 가미술에 250도 열을 올리고 찻잎을 넣어 덫는다.
3. 면포에 넣고 손에 약간 힘을 주어 돌리며 유념한다. 찻잎이 골고루 마르면, 돌리며 앞에 상처를 내어 진액이 나오게 한다.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한다. 반복할 때 술의 온도는 조금씩 낮추어가며 덫는다.
4. 두 번째 덫음을 할 때는 비비지 않고 누르고 털어 수분을 날아가게 한다.
5. 구중 구포 9번을 반복하여 덫음을 해서 완성된 차를 맛볼 수 있다.

찻잎 덫음 제다 실습 후 녹차 밭으로 향하여 제다 최초의 과정인 찻잎을 따보기로 하였다. 세작을 따는 시기는 약간 지나서 최대한 어린잎을 따서 향기도 맡아

보고 만져보고 눈으로 즐기고 소중한 체험을 하고 모든 분들과 완성된 차를 맛보는 시간도 가졌다.

맑은 초록빛을 띤 곡우에 탄 귀한 녹차의 맛의 향연을 감상하고 청우다원의 대표님, 서울제2지부 지부장님과 사범님들, 충북지부 20기 대학원 사범님들과 소중한 즐거운 다담도 나누고 웃으며 서로 오늘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 촬영도 하였다. 지루한 코로나 시국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고 전문사범과정을 더욱 보람 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처음 뵙는 인연이지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정성으로 맛있는 음식 세심하게 챙겨주시던 서울제2지부 지부장님과 총무님, 사범님들과 함께한 제다실습이었다. 소중한 제다실습의 계기를 만들어 주신 우리 충북지부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한국차문화협회 차인들은 언제 어디, 어느 곳에서 만나도 새롭지 않은 늘 만나왔던 인연처럼 따뜻하고 정감 있어 더 많이 정진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샘 솟는다.





(사)한국차문화협회 계간지 '차문화'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사)한국차문화협회가 발행하고 있는 고품격 '차문화' 지(誌)에 광고를 모집합니다. 창간 이후 무광고로 발행했던 '차문화'지에 회원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계간 차문화

- 판형 : 4×6 배판(188mm×257mm)
- 면수 : 100면 내외
- 색도 : 올컬러
- 발행부수 : 5,000부
- 배포 : 차문화 전회원을 비롯하여 일본 및 전국 차관련 유관 단체

광고 신청 접수

-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메일 또는 전화 신청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전화 : 02-719-7816)
- 광고 할 내용과 사진/ 광고필름/ PDF 파일/ JPGA 파일 접수함
- 접수된 광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함

선정 된 광고 게재 혜택

- 회원 및 전국의 유관기관에 배포되어 광고 효과 기대됨.
- 사업장의 이미지 제고 및 매출 효과 기대 등.

광고 게재 금액 (연간 계약시 1회 무료)

- 표지4 (겉 표지) 1회 1,000,000원
- 표지3 (안 표지) 1회 500,000원
- 내지 1장 (1 페이지) 1회 300,000원
- 내지 ½장 (반 페이지) 1회 200,000원

문의: (사)한국차문화협회 사무국 T. 02-719-7816



제21기 한국차문화대학원 모집안내

- ① 교육 기간 2022년 9월 ~2023년 8월 (1년간)
- ② 모집 인원 00명
- ③ 접수 방법 홈페이지(www.koreatea.or.kr) 교육안내 ▶ 교육신청 접수
- ④ 교육 일자 매월 1, 3주 토요일 11:00~16:00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⑤ 개강(예정) 2022년 9월 17일(토), 오전 11시
- ⑥ 졸업 후 취득 가능한 민간등록 자격증
 - 1)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 1급
 - 2) 인성교육예절지도사 1급
 - 3)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 4)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 5) (사)규방다례보존회에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전수교육생증
※ 단, 필기시험 및 실기심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

2022년 7월 자격검정 시행 공고

- 접수: 2022년 6월 27일(월)까지
- (사)한국차문화협회 홈페이지 민간자격 (www.koreatea.or.kr)

인성차문화예절지도사(1급, 2급, 3급)

등록번호(제2010-026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2년 7월 9일(토)	■ 3급 / 2급: 2022년 7월 16일(토) ■ 1급: 2022년 7월 23일(토)
전형료	■ 3급 : 60,000원 ■ 2급 : 80,000원 ■ 1급 : 100,000원	

인성교육예절지도사 (2급)

등록번호(제2015-005314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2년 7월 9일(토)	2022년 7월 16일(토)
전형료	2급 : 80,000원	

청소년인성예절지도사

등록번호(제2015-005316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2년 7월 9일(토)	2022년 7월 16일(토)
전형료	80,000원	
대상자	전문사범 졸업예정자	

어린이인성예절지도사

등록번호(제2015-005329호)

구분	필 기	실 기
실시일	2022년 7월 9일(토)	2022년 7월 16일(토)
전형료	80,000원	
대상자	전문사범 졸업예정자	

- 장소 : 추후 공지
- 자격검정 최종 발표 : 2022년 7월 28일(목)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환불규정 : 접수마감 전까지 응시료100% 환불 / 검정 당일 취소 시 응시료 30% 공제 후 환불
- 자격관리기관정보 - 기관명: (사)한국차문화협회 대표자 최소연
- 연락처 : (02) 719-7816 / 이메일: koreatea1991@naver.com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13길 34, 3층

(사)한국차문화협회가 주최하는 '등록민간자격 자격검정' 시행을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협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협회 발전 기부금 모금 (국민은행 827-25-0027-409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사)한국차문화협회 정관 제46조(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및 공익성 기부금 지정단체 운영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2년 3월~2022년 5월 본 협회에 기부 된 내역과 협찬물품을 공개합니다.

협회 발전 찬조금

아산지부 · 김태임 (500,000원)	전남지부 · 서난경 (300,000원)	광주지부 · 박혜란 (300,000원)
광주지부 · 박혜란 (1,500,000원)	순천지부 · 이강자 (300,000원)	전북지부 · 이 림 (300,000원)
서울제2지부 · 박광옥 (300,000원)	충북지부 · 박숙희 (300,000원)	경남지부 · 황미경 (300,000원)
인천지부 · 조영아 (300,000원)	서울제1지부 · 이석예 (300,000원)	부회부 · 박광옥 (5,000,000원)

특별회비(임원)

수석부회장 · 이혜자 (1,500,000원)	지부장 · 황미경 (500,000원)	이사 · 유미현 (1,000,000원)
부회장 · 차영민 (1,500,000원)	지부장 · 박경숙 (500,000원)	이사 · 이명숙 (1,000,000원)
부회장 · 강순란 (1,500,000원)	지부장 · 이석예 (500,000원)	이사 · 서명주 (1,000,000원)
부회장 · 김가영 (1,500,000원)	이사 · 문차남 (500,000원)	이사 · 이막동 (1,000,000원)
부회장 · 박광옥 (1,500,000원)	이사 · 하 식 (1,000,000원)	이사 · 조희옥 (1,000,000원)
지부장 · 김태임 (500,000원)	이사 · 변명선 (1,000,000원)	

특별회비(사범) (30,000원)

경남지부 · 조경자, 이미숙, 안영선, 정연상, 이영애, 이서영, 김둘자, 김희순, 전금순, 안순덕, 조경임, 조경숙, 김계순, 이돌선, 강명숙, 주영희, 정재윤

대구경북제1지부 · 배문주, 장명희, 김천수, 심순옥, 박선민, 위숙희, 정명순, 이명자, 이은숙, 구명희, 이다혜, 조현숙, 김태경, 박양자, 임순희, 배성호, 임문은, 도윤옥, 강길자, 김영옥, 김영임, 김외숙, 김윤철, 남혜란, 배일분, 서 규, 안경숙, 양영희, 엄위특, 오봉숙, 이귀자, 장경순, 정미경, 최지숙, 배태선

동수원지부 · 김지원

서울제1지부 · 김미경, 박성숙, 변윤희, 변정선, 송영아, 신경희, 유성자, 유지홍, 이상길, 이은영, 정정임, 조용연, 최점순, 최진숙, 이종남, 박남숙

인천지부 · 유현주, 최성미, 조비주, 김순옥, 강희옥, 김영애, 김돌임, 김은숙, 최선규, 김태전, 김광호, 박경숙, 김남중, 차애숙, 이영진, 박명모, 조명순, 남미선

충북지부 · 전근화, 서유진, 정미영, 김영희, 허윤숙, 김선경, 신승연, 서지연, 권정희, 조윤정, 김영심, 이병숙, 강유주, 황인의, 이재연, 윤기순, 전인숙, 정운경, 길은혜, 김동례, 정미식, 임미희

제25회 온라인 전국 청소년 차문화전 및 차예절경연대회 찬조 및 상품 협찬 내역

찬조금 및 상품 (1,000,000원) 이사장 · 최소연

임원회비(36명-1,850,000원) 차영민, 김가영, 강순란, 강정자, 이 림, 박광옥, 박숙희, 김미숙, 박혜란, 박경숙, 조정미, 이석예, 정경희, 김영애, 김태임, 조영아, 서난경, 이막동, 변명선, 서명주, 연규남, 유미현, 이광용, 이기분, 이명숙, 조희옥, 최정희, 최지원, 하식, 허경님, 황미경, 문차남, 이금숙, 노영숙, 강희옥, 이정희

규방다례 (초충도 컵 50개)

한국제다 (작설차 세트 5개)

차인들의 향기 넘치는 이야기, ‘차문화’에 담고자 합니다

<차문화>는 언제나

독자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생활 속 이야기, 시,
수필, 기행문, 논문 등 종류에
관계없이 사무처로 보내주시면
예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차문화지는 무가지로 발행되며 발송료는
연 1회, 1만 원입니다.
회원은 각 지부에 신청부탁드립니다.

정기 우송료 10,000원(1년)

국민은행 827-25-0015-983

예금주 (사)한국차문화협회

보내주실 곳

(사)한국차문화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13길 34, 3층
(우)04012
Tel : 02-719-7816~7
Fax : 02-719-7815
이메일 : koreatea1991@naver.com

한국차문화협회 차문화지 2021년 11월-2022년 2월 우송료 납부자 명단

3월 통장 입금

경남·하 식 / 광주·박금란, 최경진, 정현단, 고대희, 나유미, 민선미, 정선화 / 서
울제1·변명선 / 인천·이명주 / 천안·홍성숙

4월 통장 입금

강원·조 설, 조기주(해명스님), 최정순, 김경희, 이숙련, 안미현, 신미래, 최희숙,
김선애, 정환숙, 정태수, 박형미, 윤성숙, 황은경, 박영미, 박은화, 안정아 / 대구경
북제1·심순옥, 강길자, 김영옥, 박선민, 이은숙, 김태경, 임순희, 정명순, 이명자,
구명희, 이다혜, 위숙희, 조현숙, 도윤옥, 임문은, 장명희, 배문주(동순), 박양자, 김
천수, 배성호 / 서울제1·유지홍, 이상길, 송영아, 김미경, 정정임, 유성자, 최진숙,
최점순, 이석예, 이기분, 박성숙, 이은영, 신경희(박정우), 변윤희, 조용연, 변정선,
이은경, 박은정, 조운수, 고영화, 김미영, 허정윤, 김가영, 차영민, 최정희 / 서울제
2·오윤성 / 수원·김보겸 / 인천·김순옥, 김은숙, 차애숙, 최성미, 강희옥, 유현주,
박명모, 김영애, 최선규, 김태전, 김광호, 이영진, 조비주, 박경숙, 김남중, 김돌임,
조명순 / 전남·조화영, 김나라, 정난희, 정은희, 조성경, 김라영, 옥경, 옥원주, 강
현식, 이영미 / 전북·김명례, 안진영, 조경란, 소유미 / 충북·정미영, 임미희, 길
은혜, 김동례, 윤기순, 허윤숙, 전근화, 김선경, 김영희, 전인숙, 정운경, 조윤정, 이
병숙, 황인의, 서지연, 신승연, 정미식, 김영심, 이재연, 강유주, 서유진, 권정희

5월 통장 입금

대구경북제1·최지숙, 김윤철, 배일분, 엄위탁, 양영희, 남혜란, 서 규, 이귀자, 정
미경, 안경숙, 장경순, 김외숙, 오봉숙, 김영임 / 경남·조희옥, 조경자, 이미숙, 안
영선, 강장자, 정연상, 이영애, 이서영, 김돌자, 김희순, 전금순, 안순덕, 조경임, 조
경숙, 김계순, 이돌선, 강명숙, 주영희, 정재운, 황미경 / 충북·김효겸 / 서울제1·
서지민, 장용자, 이종남, 박남숙 / 순천·노미영, 류주희, 박상희, 박순자, 박시현,
안화자, 최윤정, 황혜진, 윤지윤, 박혜숙 / 인천·김기옥, 김희영, 이윤희 / 전남·
김경희, 김숙, 김영숙, 김현숙, 박숙희, 서태자, 오수미, 옥일화, 이경희, 진순선, 최
유진, 최수연 / 전북·배나래 / 충북·진순자, 음혜진, 박미경

곡우차 穀雨茶

곡식穀자, 비雨, 穀雨가 지났다. 時雨潤物, 때맞추
어 내리는 비로 만물을 윤택하게 한다. 봄의 마지
막 절기인 穀雨節, 茶 나무는 땅속의 물을 가장 많
이 오르는 시기이다. 이 때를 기다린 듯이 남녘엔
찾 앞을 따기 시작한다.

곡우 5일 전에 따서 만든 茶는 雨前茶라 하고, 곡
우 절기에 採茶한 茶는 '穀雨茶'라 하는데 최상품
으로 삼았다.



草衣禪師 茶神傳에 첫째로 採茶 採잎 따기가 나온다,
採茶之候 貴及其時 太早則香不全 遲則神散 以穀雨前五日

풀이해보면 차를 따는 절후는 그 시기에 미침을 귀히 여기니,
採茶가 너무 이르면 향이 온전하지 못하고 늦으면 神이 흩어진다.
곡우前 5일에만 차를 최상으로 삼고, 후 5일로 다음을 삼으며,
다시 5일로 또 그 다음을 삼는다 라고 했다.

이렇듯 봄날에 茶를 따서 뒤고 손수 물을 길러 찻물을 석정에 다리면 신선 경지이고, 또한 햇茶에 좋은
벗과 차담 나누면 근심 걱정이 없어 질것이다.

곡우 절 보름을 자고 나면 立夏 여름과 부처님 오신 날을 맞게 된다.

세월은 참 빠르다. 차 한 잔. ☯

담원 김창배 | 문화예술학 박사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 국내외 개인전 50여회, 대한민국미술상 수상, 차 한 잔의 인연, 동다송, 다산전 등 22권 출간.

차와 회화 차문화에 대하여 조선의 차 그림 연구 등 논문 4편, 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재직.

담원 김창배 선생은 초의와 범해의 풍도를 읽고 그들의 다맥(茶脈)을 이은 "금영보정(錦冥寶鼎)"을 연구하여 지난 2월 23일에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 : 錦冥寶鼎의 禪茶상과 茶詩에 대한 研究" <http://www.damwongallery.artko.kr>

● 찻잔 속 인생을 그리다 ●